

# 군선교 신학

5

| 한국군선교신학회 편 |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및 한국 교회 군선교 사역 10대 중보기도 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 : 3)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 복음화와 인류 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공식 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 사역 중보기도 제목

-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방해 세력 결박)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 복음화를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 건설)
  3. 매년 20만 명 진중세례(침례) 목표 인원 결실을
  4. 매년 20만 명 군인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프로그램 실천을
  5. 군선교 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 전도 등 10대 프로그램 실천을
  6.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 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7. 280여 군종목사, 350여 군선교 교역자, 기독교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 사역 헌신을
  8.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 등 기독교문화 창달을
  9. 모범 국민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10. 기독 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 청년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 머리말

한국전쟁은 우리의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 군대에 군목제도가 만들어지고 한국에 기독교 문화가 꽃피우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요, 하나님의 오묘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군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적 사건입니다. 젊은 청년들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의 전환점이 되는 군 복무 기간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은 결코 밝은 전망을 예견할 수 없는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습니다. 정부는 ‘작지만 빠르고 강한 군대’를 목표로 국방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간부 중심의 인적 구조 개편과 군 복무 단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고, 미래전은 공·해군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육군 중심의 군선교 전략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선교 현장에서의 종파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이단 사이버의 침투는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집요함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 가운데 세상과 교회를 보는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한국 교회와 군선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군선교 사역의 열정을 재응집할 때요 전문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군선교신학회는 성경과 신학을 바탕으로 군선교 사역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줌으로써 군선교 현장에서 군진신학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한국군선교신학회 심포지엄은

한국 교회 부흥 100주년을 맞이하여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운동’이라는 주제 하에 21세기 군선교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우리의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주제들로 편성되어 있어 대단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군선교연합회가 설립 35주년을 기념하면서 발간하는 군선교신학논문집 제 5권에는 특집 발제 논문, 연구위원 논문 등 주옥 같은 글들이 실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국내외 군선교신학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군선교신학회 회장 되시는 이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이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쿤란출판사 이형규 장로님과 사무처 사역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군종목사님들과 독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4월 1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 선 희** 목사



## 발간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간과할 수 없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서 한국 교회 제2의 도약의 때를 기다리며 출범한 비전2020운동을 통한 성령의 바람을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우리 군선교신학회에서는 제7차 논문 발표회를 갖고 군선교 부흥의 기록제가 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연구된 논문집 5권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후방 각처에서 복음을 들고 수고의 땀을 흘리시는 군종목사님들과 민간인 사역자들에게 사역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이 작은 논문집의 소임은 다한 것이라 자부하고 싶습니다.

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대답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뿐입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우리들의 사역에 보탬이 되고 힘이 되어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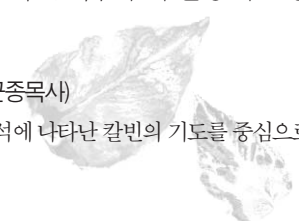
귀한 논문을 써주시기 위해 수고하신 집필자 여러분과 이 책이 햇빛을 보기까지 보이지 않게 힘써 주신 편집위원 여러분께 독자와 함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2007년 4월 1일  
한국기독교군선교신학회  
회장 이 중 윤

## Contents

- 2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4 | 머리말
- 6 | 발간사
  
- 9 |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운동(이종윤 목사)
- 36 | 한국 교회 부흥운동의 역사와 집단세례(김인수 교수)
- 78 |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강웅산 교수)
- 108 |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논찬  
(이규철 군종목사)
- 113 |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윤병국 군종목사)  
-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
- 154 |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향’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 158 | 민족 통일에 대한 성서적 이해(강사문 교수)
- 189 | 미국에 있어서의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 동향(홍치모 장로)
- 206 | 칼빈의 기도신학과 실제(최석환 군종목사)  
-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과 소선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를 중심으로 -



##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운동

- 265 | 'Pontifex Maximus' 로서의 '콘스탄티누스 대제(大帝)'  
(이규철 군종목사)
- 286 | 한국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考察)(박영관 목사)
- 311 | 집단개종의 역사적 고찰과 합동세례 보완책 제안(전호진 목사)
- 332 | 군선교와 세례운동(우기식 군종목사)
- 354 |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집단상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김현택 목사)



이종윤 목사

### 부록

- 군선교가 1(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 385
- 군선교가 2(비전2020을 이루라) / 386
- 군선교가 3(아, 비전2020이여!) / 387



I. 들어가는 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오늘의 한국 교계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금년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 일어난 후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기독교계(基督教界)에 서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100주년을 기념한 각종 기념

#### ■ 이종윤 목사

- 영국 성 앤드류스 대학교(Ph. D.), 독일 튀빙겐 대학교 수학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위원장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회장
- 서울교회 담임목사



행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념은 단지 시간적 차원에서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부흥운동에 참여한 기독교 선조들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오늘의 한국 교회 발전과 갱신을 위한 발판으로 정립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진심으로 기념하는 것은 행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시대적 상황에서 태동된 신앙을 오늘의 기독교 신앙으로 수용하여 그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부흥(부활)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2020년까지 국민의 75 %를 '신자화(信者化)' 하고자 하는 'Vision 2020 운동'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떠한 운동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제II장에서는 먼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를 분석하고, 제III장에서는 이러한 부흥운동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제IV장에서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성경적 전거(典據)'가 되는 유대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이스라엘 백성이 BC 538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전개된 실질적인 이스라엘 재건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V장에서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고자 했던 마틴 루터(M. Luther)의 종교개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VI장에서는 이상 앞에서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기 위한 'Vision 2020 신앙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부족한 사람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개혁', 혹은 '종교개혁' 그리고 '신앙개혁'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 II.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교회일치운동', '성경공부', '성령충만' 그리고 '회개운동'

지금까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신앙적 의미 및 특성을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왔습니다.<sup>1)</sup> 그러나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말(顛末)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양 대부흥운동의 공통된 특성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우선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단을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에큐메니컬(Ecumenical)운동(교회일치운동) 차원에서 일어난 말씀을 통한 기도회, 곧 말씀 사경회(查經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경배에 의하면 1903년 겨울 스웨덴의 프란스 목사는 중국에 체재하고 있는 남감리교 선교사 화이트(Miss M. White) 여사와 함께 원산(元山)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기도와 성서 연구를 위해서 1주일 동안 모인 사경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후 이들은 장로교와 침례교 선교사들과 교인이 합쳐서 연합하여 창전(窓前)교회에서 한 주일 동안 밤마다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캐나다 남감리교 선교사로 일하던 의사 하디(Dr. R. A. Hardie: 河裡泳)가 오랜 선교활동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것은 그릇된 자신의 선교 동기에 있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 순간 의사 하디 선교사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합니다.<sup>2)</sup> 그 후 1904년 봄 원산에서 삼파, 곧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연합 사경회 도중 장로교의 로브(Rev. a. F. Robb: 業亞力)와 한국인

1) 이점에 관한 연구: 閔庚培, 「韓國基督教教會史」 신개정판(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pp. 264-281;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pp. 243-282; 김인수, 「미국 교회 대각성운동과 한국 교회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비교연구」, 〈2005년 제5회 장로회신학대학교 국제학술대회〉 2005년 5월 25일 강연집, pp. 1-28; 방위량, 「그는 이렇게 믿었다」(대한기독교서회, 1961);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새생명말씀사, 2000); 홍기영,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선교학적 고찰 in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46집(2006), p. 375ff.; 홍기영, 「토착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선교와 신학」 18집(2006), pp. 12-51; 김인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 성경공부의 현대적 의미」, 〈제4회 피어선 국제학술대회〉 평택대학교, 2006년 9월 4일 강연집, pp. 22-32.

2) 민경배, op. cit., p. 266.

전계은(全啓恩)이 원산 거리에서 통회 전도를 하였으며, 감리교의 정춘수(鄭春洙) 역시 성령의 은사를 계속해서 선포하였습니다.<sup>3)</sup>

이 소식을 접한 평양의 선교사들은 하디 선교사를 초빙하여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이때 마침 웨일스와 인도 지방에서도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이 선교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평양의 선교사들은 성령 강림을 갈망하게 되었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대한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음력 11월 20일(양력 1904. 12. 26.)경 평양 야소 교회당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제 황평의 일반 교인들이 구름같이 모였는데 그시에 착한 사업에 경영이 회당 교회는 익익 왕성한다 한다<sup>4)</sup>

원산과 평양에서 시작된 선교사와 성도들의 사경회를 통한 말씀공부와 기도예에 따른 성도들의 성령 충만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자, 1905년 6월 25일 서울에서도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위원회를 조직하여 남장로교 레이놀즈(W. D. Reynolds)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한국 민족교회를 창설하여, 그 이름을 ‘한국기독교회’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sup>5)</sup> 이에 부응하여 선교 공의회(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도 1905년 9월 15일 두 감리교 선교부와 네 장로교 선교부에서 약 150여 명의 선교사가 참석하여 복음주의적 단일 한국 교회의 설립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후 1907년 1월 12일 토요일, ‘평양의 장로교, 감리교 부흥회’에서 블레어(W. N. Blair) 목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읽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한 지체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부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더니, 그 다음 날인 주일날 밤 집회에서는 신비로

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sup>6)</sup> 교회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성도들은 강한 영적 힘에 의해 압도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런던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라는 말을 하자마자 밖으로부터 흠뻑 밀어닥치는 강대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했다고 한다.”<sup>7)</sup> 그래서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밤새워 통성(通聲)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감동의 격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방위량은 이러한 현상을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는 영혼의 넘치는 찬양의 물결’이라고 특징짓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당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우들의 통회를 한 여자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 도적, 거짓,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의 힘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할 수는 없을 터이다.”<sup>8)</sup>

이상 살펴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말(顛末)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각국에서 파견된 선교사와 온 교우가 하나가 되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충만해진 선교사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행하여진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한국 각 교파의 교우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일치운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연구운동이며,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성령 강림의 역사이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운

3) 梁柱三, 「朝鮮南監理教會」(서울, 1926), p. 61(민경배, op. cit., 266에서 재인용).

4) 잡보 <대한매일신보>, 1905년 2월 13일자(민경배, op. cit., 267에서 재인용).

5) A. D. Clark,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Seoul: C.I.S., p. 139(민경배, op. cit., 264에서 재인용).

6) W. N. Blair, *Gold in Korea*, 3rd ed. Presbyterian Church, U.S.A., 1957, p. 63(민경배, op. cit., pp. 268에서 재인용).

7) *The Baptist Missionary Magazine*, Vol. 88, No. 2, 1908, p. 58에서 인용(민경배, op. cit., p. 268에서 재인용).

8) W. W. Baird, “The Spirit among Pyeng Yang Students”, *K.M.F.*, Vol. III, May, 1907, p. 66ff.(민경배, op. cit., p. 268에서 재인용).

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아무런 신앙적 준비 없이 한순간 돌연히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인가? 성령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전제 없이 임하는 것인가? 어떻게 일개 한 선교사(하지, 河裡泳)의 회개가 이처럼 많은 선교사들과 교우들의 부끄럼을 모르는 회개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당대의 교회사적 배경과 성경의 증언을 살펴봄으로써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III. 조국의 희망을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하고자 한 한국 교회의 성경회

민경배에 의하면, 한국에 들어온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은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선교 방법에서 로마 가톨릭의 선교 방법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sup>9)</sup> 뿐만 아니라 구출라프나 토마스에 의해 이미 성경이 한국 천주교회뿐 아니라 개신교 교우들에게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알렉산더 윌리엄슨의 보고에 의하면 어느 날 한국의 천주교인이 “신, 구약 성서와 복음서를 보더니 그것이 자기 종교인들이 쓰는 책과 같은 것”이라고 알아볼 정도로, 일찍이 한국에는 여러 통로를 통하여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sup>10)</sup> 그래서 1890년대 와서 한국의 성경 보급량은 중국에서 59년에 걸쳐 보급했던 양을 한국에서는 10년 안에 보급했을 정도로 한국 교회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sup>11)</sup>

9) 민경배, op. cit., p. 173.

10)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Glasgow: 1865, 36(민경배, op. cit., p. 173에서 재인용).

그러나 한국 교회에 성경 보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서상륜(徐相崙), 이응찬(李應贊) 두 평신도의 성경(말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873년 만주 통화현(通化縣) 고려문(高麗門)에서 존 로스(John Ross) 목사를 만난 후, 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특히 서상륜은 성경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목판을 깎아 내어 번역한 성경을 인쇄, 출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882년 가을에는 심양 문광서원 간행으로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와 「예수성교 요한 복음전서」라는 쪽 복음서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sup>12)</sup> 그리고 존 로스와 매킨타이어 목사는 서상륜과 김진기, 이응찬, 백홍준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서 쪽 복음을 한국어로 번역 출판하였으며, 1884년까지 쪽 복음은 무려 1만 5천 권이 넘도록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1887년에는 마침내 「예수 성교 전서」라 하여, 신약성서 전부가 번역 간행되었습니다.<sup>13)</sup>

이렇게 한국에는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수정의 성경을 가지고 인천항에 발을 내딛기 이전부터 이미 한글로 번역된 쪽 복음과 부족하지만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선교가 수월했다고 김인수는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들이 “중국어 단어들로 가득 차 있고…… 형편없는 철자와 형편없는 인쇄”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sup>14)</sup> 그래서 김인수에 의하면 미국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와서 맨 먼저

11) *The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Vol. 92-93, p. 242.(민경배, op. cit., p. 174에서 재인용).

12) *Historical Catalogue*, op. cit., Vol. II, No. 5984, 5985, 886. 여기에는 타이프 활자를 일본에서 얻어와 찍은 것으로 되어 있다(민경배, op. cit., p. 169에서 재인용).

13) *Historical Catalogue*, op. cit., Vol. II, Ser. No. 5993. 1888년에 이 「예수 성교 전서」는 6천 부 반포되었고, 쪽 복음 등의 성서는 5만여 부가 전파되었다(민경배, op. cit., p. 169. 각주 25에서 재인용).

14) H. G. Underwood to F. F. Ellinwood, 15 Nov., 1905. PHS.(김인수, op. cit., p. 164f.에서 재인용).



작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성경 번역 사업이고,<sup>15)</sup> 한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 성경을 한국어로 새롭게 번역하기 시작한 사람은 언더우드(H. G. Underwood) 선교사라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아펜젤러와 더불어 그들의 어학 선생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마가복음부터 번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1887년에 1차 번역이 끝났고 바로 출판에 들어갔습니다.”<sup>16)</sup> 1887년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성경번역위원회(The Committee for Translation the Bible into the Korean Language)’는 1900년 신약성경을 완역하여 출판하였습니다.<sup>17)</sup>

이처럼 이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개신교도들에게 널리 보급되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새롭게 번역 출판됨으로써, 한국 개신교 교우들 가운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성경을 탐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국제선교 리뷰>는 그 당시 한국 교회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권위와 그 가치에 대한 깊은 확신이 널리 퍼져 있으며, 한국 사람들은 성서를 그들 생활의 최심장부에 가져다 놓고 있었다.”<sup>18)</sup> 그래서 민경배는 처윈(A. M. Chirgwin)을 인용하여, “한국 교회가 ‘성서의 교회’라는 말은 건줄 수 없는 자랑이요 특징이었다. 이 성서의 소중한 영접과 열의 넘치는 성서 연구야말로 한국 교회에 넘쳐흐르는 영력(靈力)의 참된 연원(淵源)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sup>19)</sup>

15) 김인수, op. cit., p. 164.

16) 김인수, op. cit., p. 165.

17) 1887년 결성된 ‘성경번역위원회(The Committee for Translation the Bible into the Korean Language)’는 1893년 조직을 개편하고 위원도 추가하여 ‘성경번역 상임위원회(The 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로 이름을 바꾸었다. 구약성경은 1910년 완역되어 1911년 신·구약 성경이 완역되어 출판되었다. 이 성경이 1937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이것을 구역(舊譯)과 비교하여 ‘개역(改譯성경)’이라고 부르고, 이를 다시 개정한 것이 바로 ‘개역개정판’ 성경이다.

18) G. H. Jones, “The Growth of the Church in the Mission Field”, *The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Edinburgh: 1912, Vol. I, No. 3, p. 417(민경배, op. cit., p. 174에서 재인용).

19) A. M. Chirgwin, *The Bible in World Evangelism*, London: S. C. M., 1954, p. 86(민경배, ibid.에서 재인용).

성경의 번역과 보급으로 한국 교회에 이미 복음의 밭, 곧 영적 터밭이 마련된 이후, 한국 교회는 사경회(査經會)를 통하여 한국 그리스도인들, 곧 복음의 밭이 달구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인수에 의하면 “1893년부터는 모든 교회가 사경회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사경회의 상급반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이었지만, 기초반에서는 농한기(農閑期)에……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실시하였(습니)다.”<sup>20)</sup> 바로 이 사경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원동력이었다고 박용규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한국 교회 역사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sup>21)</sup> 예컨대 백낙준은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1907년 1월초 평양에서 모인 사경회 기간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을 결실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경회는 10일 간의 수업을 위하여 모였으며 그것은 이미 설정된 형태대로 성경공부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저녁은 전적으로 특별부흥집회로 모였다. 이러한 저녁부흥회 중 한 집회에서 이 부흥이 시작된 것이다.”<sup>22)</sup> 클라크(Allen D. Clark)의 보고에 의하면 “사경회와 관련된 저녁집회는 남자만 1,5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 있는 중앙교회(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sup>23)</sup> 박용규에 의하면 사경회를 통한 체계적인 말씀 연구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만들었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다시 그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전도열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은 백만 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자는 백만인 구령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sup>24)</sup> 그래서 미국 선교

20) 김인수, op. cit., p. 167.

21) 박용규, op. cit., 201f; p. 660f.

22)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p. 370(홍기영, op. cit., p. 30에서 재인용).

23) Allen D. Clark, *History of the Korean Church*(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16), p. 132(홍기영, op. cit., p. 31에서 재인용).

24) 박용규, op. cit., p. 615.

사 언더우드(Underwood)는 자신이 선교를 시작한 후 얼마 안 되어 한국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성경의 번역과 반포(頒布), 그리고 사경회를 통하여 복음의 발이 이미 갈아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sup>25)</sup>

이상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미리 달구어 놓은 한국 교회의 말씀 번역과 반포, 그리고 말씀 공부인 사경회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오순절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연상하게 됩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행 2:37-38)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런 말씀에 상응하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읽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니 그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선교사들 사이에 있었던 안목과 질서를 극복하고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모두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 현상’이라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23-31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서 놓임을 받은 후, 저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매, “그들(초대교회 교우들)이(베드로와 요한의 사건, 필자 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행 4:24);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29-31)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초대교회 교우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으며)”(행 2:42),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의하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일제의 압제로 인하여 좌절된 개신교인들이 조국의 희망을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하고자 한 사경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도 없었고, 성령의 역사 없는 말씀 선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러 오순절 사건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며 동시에 복음 선포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행 2:1-13)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갑자기 하디 선교사는 사경회 도중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한 여자 선교사가 보고하듯이, 1907년 1월초 평양 사경회에서 많은 교우들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 어젖힌 듯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 도적, 거짓, 질투 등 수많은 죄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회개운동의 원인과 전거(典據)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25) *The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Vol. 84-85, 1888-1889, p. 287(민경배, op. cit., p. 172에서 재인용).

#### IV. 말씀에 기초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에스라의 이스라엘의 재건 운동

유다 왕 요시야가 639/38년 당시 8세로 자기 부친 아몬 왕을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을 때, 열왕기하 21장 20-22절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 정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sup>26)</sup>: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왕하 21:20-22).

신앙적 정황이 어떠했는지는 유다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에서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sup>27)</sup>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폐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또 여호와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기)”(왕하 23:4-7)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

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왕하 23:10),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며)”(왕하 23:11), 각종 우상, 곧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과 같은 각종 우상을 불사르고 그를 섬기기 위하여 만든 제단과 산당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왕하 23:12-14).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벤엘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뺏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왕하 23:15).<sup>28)</sup>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요시야 왕의 이러한 종교개혁, 바꾸어 말하면 민족적 회개운동 혹은 신앙적 정화운동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발견에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통치 열여덟째 해가 되는 어느 날 왕은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와의 성전에 보내며 백성이 여호와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수어진 것을 수리하도록 명합니다(왕하 22:4-5).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힐기야는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으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왕하 22:8). 그 후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며)”(왕하 22:9-11)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하고, 스스로 생각하

26) 유다 왕 요시야는 639/38 - 609까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였다.

27) 요시야 종교개혁에 관하여: N. Lohfink, “The Cultic Reform of Josiah of Judah, Ancient Israelite Religion”, *Essays in Honor of F. M. Cross*, 1987, pp. 459-475; H. Spieckermann,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FRLANT 129, 1982; H. -D. Hoffmann, *Reform und Reformen*, AThAN 66, 1908; H. Hollenstein, “Literakritische Erwägungen zum Bericht über die Reformmaßnahmen Josias 2 Kön. XXIII 4ff.”, VT 27(1977), pp. 321-336; E. Würthwein, “Die Josianische Reform und das Deuteronomium,” ZThK 73(1976), pp. 395-423.

28) 이스라엘의 역사가 군네베크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보고를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하든 낮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요시야가 유다 나라의 국경선을 넘어서 종교개혁을 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보고문에 나오는 지명을 통하여 밝혀진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국가의 영토에 속했던 벤엘과 사마리아 같은 도성들도 역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Antonius H. J. Gunneweg, *Geschichte Israels: Von den Anfängen bis Bar Kochba*, 문희석 역, 『이스라엘 역사』(한국신학연구소 1996), p. 241.

기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왕하 22:13)고 한탄합니다.<sup>29)</sup> 그 후 왕의 명령을 따라, 예언지자 홀다에게 발견한 율법 책에 대하여 물으니,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여호와와 말씀이 내(여호와 하나님)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라)”(왕하 22:15-16)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유다)이 나(여호와 하나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음이라”(왕하 22:17)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홀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곳(예루살렘)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운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왕하 22:19-20).

그 후 요시야 왕은 새로 발견한 율법에 따라서 조상들의 신앙 전승을 회복 및 재건하는 의미에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래로)……지킨 일이 없었

29) 유다 왕 요시야가 등극하기 전,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는 므낫세의 장기집권 동안, 아시리아 대국은 자기 세력의 절정에 도달하여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하였다. 산헤립의 후계자인 에살하돈(681-669)은 에집트로 여러 번 원정하였다. 나일 강의 삼각주에 있는 멤피스 수도를 포함한 에집트는 아시리아에게 정복되어 아시리아 대국의 한 주로 바뀌어 버렸다.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22명의 봉신들의 명단 중에는 유다 왕 므낫세의 이름도 적혀 있다(이점에 관하여: ANET, pp. 290-294; TGI, 2.Aufl., 70 = Antonius H. J. Gunneweg, 문희석 역, 『이스라엘 역사』, p. 238에서 재인용).

(던)”(왕하 23:22)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요시야 왕 열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왕하 23:21, 23).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시야 왕은 ‘여호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왕하 23:24b),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습니다)”(왕하 23:24a).

이상 살펴 본 유다,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 개축 중 발견한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을 재발견한 후 단행한 종교개혁과 그의 회개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요시야 왕의 이스라엘 종교개혁은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의 재발견에서 비롯되었으며, 둘째, 말씀의 재발견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회개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셋째 회개운동은 실제로 각종 우상을 불살라 버리고 그를 위한 제단과 산당을 헐고 남창이 시는 집을 헐어 버리는 구체적인 개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조상의 신앙을 전승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의 전개 과정, 곧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회, 부끄럼을 모르는 회개운동,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전승하고자 하는 100만인 구령운동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재발견, 곧 율법을 숙고함으로써 야훼 하나님에게 되돌아오는 회개운동은 BC 538년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한 소위 이스라엘 재건운동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됩니다.

역대기 학파의 저술인 에스라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Kyros, 539-529)는 BC 538년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은 이스라엘 유랑민들에게 포로생활에서 돌아갈 수 있음을 허락하며,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바벨론 사람들이 약탈하여 온 성전의 기물들을 되돌려 주라는 지시

입니다(스 1:1-4, 7-11). 이러한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의 사면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약 42,000명이 조국으로 되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은 즉각 예루살렘에 비상 제단을 설치하고, 포로 기간 동안 완전히 소멸되었던 희생 제물의 제사 의식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라”(스 3:1-3).

그러나 무엇보다도 에스라는 유다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방인들과의 민족 외 결혼(民族外結婚) 소식을 듣고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출 34:16, 이밖에 신 7:3)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본 터에 남아 있던 “……유다 사람(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느 13:23).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점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해석하였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느 13:27). 그러므로 에스라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지나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겹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스 9:4-10).

이러한 에스라의 대속적 참회기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고,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회개의 일환으로 이방 여인과 그의 소생들을 모두 예루살렘 밖으로 내어 쫓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



라”(스 10:1-3).

지금까지 살펴본 유다 왕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재건운동의 진행 과정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전개 과정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정황)	사건의 발단	회개운동	회개의 실천
아시리아로 인한 고통과 조공 바침 (제1계명을 어김)	요시아 왕이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고 율법을 준수하고자 함	요시아 왕이 옷을 찢는 회개와 더불어 이방 신을 위한 제단과 산당을 헐고, 각종 우상을 불사름	율법으로 돌아가 유월절을 지킴
바벨론의 포로생활 (이방인과 결혼 금지 율법을 어김)	이방 여인과의 결혼한 사람들이 많음을 발견함과 이를 금하고 있는 율법을 깨달음	에스라가 옷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께 올림	이방 여인과 그의 소생들을 내어 쫓음
청일(淸日)전쟁과 노일(露日)전쟁으로 한반도가 초토화 됨 <sup>30)</sup> (조상숭배 및 우상숭배) (제1계명 어김)	사경회 동안 말씀을 연구하는 중 선교사 및 교우가 자신의 죄를 깨달음	선교사들과 많은 교우들이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	회개하고 100만 인 구령운동 전개

이와 같이 어느 민족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면,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금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내(여호와와 하나님)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찢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스 12:10, 이삭에 사 66:2)<sup>31)</sup>의 말씀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의 회개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게)”(히 4:12-13)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상응하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행 2:37-38)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사회적 부패를 개혁한 16세기 마틴 루터(M. Luther)에 의해 주도된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원리가 되었습니다.

## V. 말 씀의 재발견 으로서의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논제를 비텐베르크(Wittenberg) 교회의 문에 게시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한 개혁의

30)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반도는 청일전쟁(1894-1895)과 노일전쟁(1904.2-1905.10)의 전쟁터가 되었다.

31) 사 66: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반기를 들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도사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익히 알고 있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이방 족속과 결혼한 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처럼,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청컨대 독자들은, 내(Martin Luther)가 무(無: Nichts)로부터 갑자기 나와서 성경을 탐구하는 자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sup>32)</sup>

왜냐하면 우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무렵 중세의 사회, 정치, 경제, 종교는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교회 지배권은 와해되어 서방교회는 2-3명의 병립 교황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으며, ‘교회의 머리와 지체들의 개혁’을 위하여 콘스탄츠, 바젤, 페라라, 피렌체, 라테란 등에서 일어난 개혁 공의회들조차도 개혁에 실패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현물경제가 화폐경제체도로 대체되면서 신흥 자본이 형성되게 되었으며, 인쇄술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성경 지식에 대한 갈망을 촉진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교황청의 전제군주제적 중앙집권주의는 방만한 재정정책과 베드로 대성당 신축으로 인하여 거액의 재정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과 같은 민족국가가 부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알프스 산 이북지역 국가들의 피해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귀족들에 의한 고위 성직 독점과 부유한 영주 주교들과 수도원의 세속화, 너무나 많은 교회 축일, 엄청나게 복잡한 교회법

32) WA 54. 186, 25-29; vgl. 179, p. 27f(Heiko A. Obermann, Luther. *Mensch zwischen Gott und Teufel*, Servin und Siedler, 1981, p. 166에서 재인용).

과 신학, 끝으로 일반 민중들의 경악스러운 미신과 성물숭배, 광신적인 종교적 신경과민, 거기애다가 노동을 기피하는 수도사들과 성직자들에 대한 증오, 도시 지식인층들의 시민 억압과 착취 등.<sup>33)</sup> 복합적인 사회적 부패는 성경 말씀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젊은 신학자이자 기도하는 수도사 마틴 루터에게는 ‘악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르게 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된 루터는 “신학에 있어서는 성경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는 것이 유일한 학문적 기초이자 진리의 확실한 기준”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sup>34)</sup>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진리의 표준이라는 것을 루터는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더욱 가슴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1518년과 1519년의 일들을 회고하는 자신의 자서전적 단편(1545년)에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각인하고 있었습니다(참고, 함 2:4). 다시 말해서 루터는 성경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인간의 의, 곧 인간의 선행과 공덕을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전면적인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젠 이것만이 올바른 기독교의 길이기에, 나는 나의 죄에서 떠

33) 이점에 관하여: Hans Küng, *Das Christentum, Wesen und Geschichte*, 이종한 역, 분도출판사 2002, p. 657f.

34) Heiko A. Obermann, *Luther, Mensch zwischen Gott und Teufel*, Servin und Siedler, 1981, p. 159: “Denn in der Theologie ist das genauere Hören auf die Heilige Schrift die einzige wissenschaftliche Basis und damit der sichere Maßstab für Wahrheit.”

나 더 이상 그것과 아무런 관계도 갖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면 이 몸이 나의 것임을 알듯,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공로 그리고 죄 없으심과 거룩하심이 나의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죽으며 쇠퇴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선하지도 의롭지도 못하나 그리스도는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그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으며 교리문답서를 공부한다.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는 우리를 열째안아 주실 것이다.”<sup>35)</sup>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얻어진 이러한 신학적 인식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공로와 보상을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인습적인 도덕률, 혹은 양심 지향의 도덕성에 대한 가르침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나(M. Luther)는 선하지도 의롭지도 못하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이러한 인식과 고백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후에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고백이고 인식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황권 아래 있을 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시 31:1)라고 기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그 후 하나님의 의란 그분의 은총으로, 그 은총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게 보존하시는 것임을 배우고 알게 되어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sup>36)</sup>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사색과, 선행과 고행

을 통한 의는 항상 인간의 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에 머물러 있을 때는 성령의 감화로 인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에 의하면 “율법(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양심을 비난하며, 놀라게 하는—사람들이 그것을 그리스도(복음)에서나 모세(율법)에서든 그 어디서 발견하든—일체이기” 때문입니다.<sup>37)</sup> 그래서 오버만(Obermann)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학자는 철학이나 사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투쟁의 삶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그의 발전 과정을 두 단계로 축소하면 처음에는 절망적인 수도사였으나, 갑자기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순간부터는 자심감에 찬 개혁자가 되었다.”<sup>38)</sup>

이렇듯 루터로 하여금 당시의 거대한 악마의 본체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권에 대항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힘을 주고, 그를 개혁자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면죄부 판매에 대항하여 논리적으로 더 자세히 말하면 성경의 증언에 준하여 로마 교황과 가톨릭 교리를 논박하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오버만에 의하면 루터는 성무일과 성경 읽기와 고백적인 묵상기도,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증언들을 깨닫기 위한 극한의 금식과 철야기도 등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였으며, 동시에 말씀에 대한 해석학적 논쟁을 극복하기 위한 끝없는 학문적 탐구를 통하여 성경으로부터

35) WAT 2, no. 1351; 66, 1-7; p. 1532(Heiko A. Obermann, *Luther*, p. 161에서 재인용).

36) WAT 4, no. 4007; 73, 15, p. 24; 1538년 9월 12일(Heiko A. Obermann, *Luther*, p. 162에서 재인용).

37) WA., 39, I, 348, 25; 535, 2 : “Cum tamen revera lex sit, quod legis officio fungitur, quod terret, quod accusat conscientias, quod ingratitude, lebidines et peccata ostendit, sive sit in Evangelio, sive Mose(그렇지만 그것은 참으로 율법이 그의 직분, 곧 양심을 놀라게 만들고, 고발하고, 복음으로 배운망덕과 욕망과 죄를 드러내는 직분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Paul Althaus, *Die Theologie Martin Luther*, 구영철, 성광문화사 1994, p. 369에서 재인용.

38) Heiko A. Obermann, *Luther*, p. 166f.

그 말씀의 능력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sup>39)</sup>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의 탐구를 통하여 그 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적, 교리적 그리고 교권의 부패를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그는 담대히 교회와 교황의 회개를 촉구한 운동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 바꾸어 말하면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주제에 대하여 로마 교회는 깊이 통회하는 한 방물의 눈물도 흐리지 않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부패한 로마 교회에 홀연히 등을 돌리고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과 부패한 인간 사이에는 그 어떠한 접촉점도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갈라 놓으신 하늘과 땅을 인간이 하나로 합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그 어떠한 인간의 이성적 사색으로나 선행으로도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단호하게 ‘인간의 참된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은 이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sup>40)</sup> 왜냐하면 철학은 성경의 정의: 즉 ‘하나님의 형상(창 1:27)은 영혼이다’ 라는 의미로부터 아무것도 표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모든 이성적 주장들에 반대하여 오직 성경의 기반 위에서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말한다: ‘하늘로부터 천사들(이는 교회의 교부들을 의미함)이 내려와 다르게 가르치면 그들은 저주를 받으리라.’”<sup>41)</sup>

39) Op. cit., p. 167.

40) 이점은 1536년 하이델베르크에서 있었던 루터의 인간론 논쟁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G. Ebeling, *Lutherstudien*, Bd. 2: *Disputatio de Homine*, 2. Teile, Tübingen 1977, 1982.

41) WA 9, 46, pp. 16-2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도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탐구, 둘째, 말씀에 근거하여 당대의 죄악을 파악하게 되고, 셋째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전개 과정도 이미 앞에서 살펴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유다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복구운동의 전개 과정과 유형적으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개해 온 ‘Vision 2020 운동’도 앞으로 보다 활성화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조들이 사회와 교회를 갱신하기 위하여 전개하여 온 개혁 과정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VI. 말씀연구를 통한 성령의 에메르겐츠(Emergenz) 현상으로 확산되어야 할 Vision2020운동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비롯하여 유다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재건운동 그리고 16세기 마틴 루터(M. Luther)의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개혁과 변화를 필요로 하였던 시대적 정황은 하나같이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특히 신앙적 위기(Not)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세에 의해 자국이 위협과 억압을 받고 있을 때였으며, 경제적으로는 타국의 수탈로 인하여 삶의 환경이 심히 피폐해진 상태였고, 신앙적으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는 캄캄한 암흑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청일전쟁(1894-1895)과 노일전쟁(1904. 2 -1905. 10)의 전쟁터가 되어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일본에 많은 빚을 지고 있

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나라였고, 사회적으로는 민족적 자존 능력을 거의 상실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우상숭배를 일삼는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 반도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신앙적 정황을 극복할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한 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사경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신앙적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부적과 같은 미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강한 힘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새로운 단결심을 만들어 내며, 죄로 인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에서 무력해진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며, 억압된 삶에 다시 새 힘을 불어 넣기 때문입니다.<sup>42)</sup>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보고 낙심되어 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요 20:22)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힘으로 고난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능히 어려운 고통을 참고 견디며 승리의 날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다름 아닌 바로 말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그러므로 Vision 2020 운동은 이제 말씀연구 운동으로 패러다임을 보

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말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 정기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보충(Feedback) 하는 운동도 동시에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마 4:4, 인용 신 8:3)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되지 않으면 그 세례는 단지 종교적 표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성례(Sacrament)는 단지 종교적 징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세상 끝 날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마 28:20) 장병들을 불러 모아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양육하고, 성령을 부어 주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사기가 떨어진 군인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군 공동체가 하나같이 단결되고 조국애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에페르겐즈 현상입니다.

물론 모든 과정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하여 실행하시지만, 우리는 제도적 교육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장(Die Kraftwelt des Geistes)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성령이 창발적으로 공동체를 확산시키는 성령의 에페르겐즈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 온 유대와 → 사마리아와 →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에페르겐즈 현상이 Vision 2020 운동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2) M. Welker, *Gottes Geist: Theologie des Heiligen Geistes*, 신준호 역, 「하나님의 영」(대한기독교서회, 1995), p. 84.



## 한국 교회 부흥운동의 역사와 집단세례



김인수 교수



### I. 서론

금년은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각 교단, 교회에서는 이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한국에 부흥의 불길이 붙기 원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에 분주하다. 교회가 시작된 지 2천 년이 지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작고 미미

#### ■ 김인수 교수

- 미국 맥코믹신학교(D. Min.)
- 미국 버지니아 유니온신학교(Ph. D.)
- 한국 교회사학회 회장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역사신학)

한 곳에서 비롯된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이다. 그러나 이런 교회 성장은 필연적으로 이 일에 투신한 사명자들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교회 성장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그리고 선교사들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결과이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되었다. 한국의 교회 성장은 세계 교회가 놀랄 정도로 급속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시대마다 부흥운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세계교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서도 끊임없이 부흥운동이 일어나 이 운동을 통해 전도가 활성화되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었고, 수세자들이 늘었다. 따라서 부흥운동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교회 부흥운동의 역사를 초기부터 최근까지 살피고, 근래에 시도된 군선교운동을, 특히 1970년 전군신자화운동부터 최근 비전2020운동까지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특히 금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운동의 성격을 자세히 점검하고 이 운동이 오늘 한국 교회에 재현될 수 있도록 역사의 교훈을 얻고자 한다.

인구는 줄어들고, 날이 갈수록 전도는 어려워지고, 안티기독교의 악의 세력은 점점 힘을 얻어 가는 요즘,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활성화되는 유일한 해결책은 군에서 애써 세례 준 장병들이 전역하여 사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군선교 전반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 II. 부흥운동의역사

### A.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한국에서는 세계 교회가 놀랄 만한 교회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교회 성장을 세계 교회는 “근대 선교의 또 다른 기적(a miracle in modern missions)”이라고들 말했다.<sup>1)</sup> ‘한국 교회의 성장,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 필자는 그 이유를 10가지로 분석한 바 있다.<sup>2)</sup> 이곳에 열거한 모든 이유들의 기저에는 부흥운동이 있었다. 이기적 혹은 무교적 동기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일반대중들이나 애국애족의 고차원적 동기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거나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아니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잘못된 동기로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들이 1907년 대부흥운동을 경과하면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교회관을 갖게 되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즈음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은 혼란기였다. 그 해 11월, 일제는 소위 “을사조약”이라는 치욕적인 늑약(勒約)을 강압적으로 체결시켰다. 조약에 따라 서울에는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고 1906년 2월에는 이등박문(伊藤博文)이 통감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식민화를 구체화하였다. 급기야 1910년 한일병탄을 이루고 말아 500년 조선왕조는 비극적으로 끝을 맺었다. 군대의 해산으로 각지에서 의병

이 일어나고, 동학 농민 혁명, 계속되는 흉년과 기근, 그리고 역병과 탐관 오리들의 가렴주구로 백성들의 삶이 극도로 황폐해 갔다. 이런 육체적 탈진은 영적 고갈을 심화시켰고, 종교적 본능은 새로운 종교 운동의 출현을 갈망하게 하였다. 남감리교회의 무즈(Moose) 선교사는 “일반적인 불안 의식과 정신적 지주(支柱)의 결여는 백성들로 하여금 선교사와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지향하게 하였고, 그들이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지 찾으려고 애썼다”고 썼다. 부흥운동은 이런 정치, 사회, 경제, 사상적 혼란과 난경(難境)에서 비롯되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교회적 배경은 성경공부와 기도운동에서 비롯되었다. 1903년 함경남도 원산지방에서 선교하던 감리교 선교사들이 스웨덴 목사 프란스(Franz)가 이 지역에 왔을 때 원산의 바닷가에서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가졌다. 이 기도회는 감리교 선교사들과 더불어 장로교, 침례교의 선교사들과 일부 한국 교인들도 참여하는 연합 모임으로 확대되어 일주일간 계속 되었다. 이 기도회에 남감리교회 선교사로서 강원도에서 수년 간 선교활동을 하였지만 별 성과를 얻지 못한 하디(R. A. Hardie)가 자기의 무력을 깨닫고 통회 자복의 기도를 드린 것이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이 운동은 매년 계속되었는데 원산지방 부흥의 소식을 들은 평양의 선교사들은 1906년 여름에 하디를 강사로 초빙하여 장, 감 선교사들이 연합으로 한 주간 동안 성경공부와 기도회로 모여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

부흥회의 또 다른 원인은 길선주 장로의 ‘새벽기도회’였다. 길 장로는 1906년 가을부터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걱정하며 새벽에 예배당에 나가 기도하였다. 이에 여러 교인들이 호응하여 얼마 후에는 300-500명의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길 장로는 교회 당회에 정식 허가를 얻어 공식적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회는 1906년 가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되었다.

1) 세계적인 선교잡지인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vol. II (April 1889): 312면에 한국의 교회 성장에 대해 “한국은 오늘 현대 선교의 또 다른 기적(Korea is today another miracle in modern missions)”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북장로교회가 한국에서의 선교 25주년을 기념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중 “The Literary Work of Twenty Five Years,” *Quarto Centennial Papers*, p., 89에서 한국 선교를 “One of the greatest wonders of modern missions”라고 기록했다. 서북지방 특히 평안북도의 교세는 대단하였는데, 선천 같은 작은 도시에도 기독교 선교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전 주민의 1/4이 기독교인이 되는 “세계선교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선교의 결과가 나왔다는 기록도 있다. 『姜信明信仰著作集』(기독교문사, 1978), 583쪽.

2) 김인수, 「한국기독교교회의 역사」, pp. 206-215 참조.

한 마디로 한국의 부흥운동은 선교사들의 자성하는 성경공부 모임과 길선주 장로의 새벽기도 운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선교사들의 “말씀공부”와 한국 지도자들의 “기도”가 서로 어우러져 이룩된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실증해 보여 준 것이다.

대부흥운동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개인과 사회의 회개와 도덕성의 회복이다. 부흥운동은 신자 각 개인이 죄를 참회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부흥운동의 기수들은 대개 회개를 강요하는 설교를 하게 된다. 한국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실은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기독교를 기존 신앙의 한 형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회개를 경험치 못했다. 그러나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흥운동은 기독교의 진리가 한국 기독교인들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참된 회개와 성령의 감동,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결단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 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 즉 축첩, 도박, 음주, 흡연, 노예 소유까지도 회개하는 경지로 나갔다. 개인의 회개는 가정을 변화시켰고, 사회를 개조시키는 놀라운 변혁을 가져왔다. 이로써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속한 사회는 격랑의 물결 속으로 서서히 들어갔다.

둘째로 교회의 성장과 교육기관의 증가이다. 1907년 대부흥운동의 물결이 지나간 후에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신자들의 전도에 힘입은 교회의 부흥이었다. 1907년 한 해 동안 평양의 부흥운동 기간 중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넘었다. 교회의 성장에 대해 언더우드님은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1906년에서 1907년 사이에 장로교회의 성장

은 세례자 수가 12,506명에서 15,097명으로 29%가 증가하였고, 원입은 44,587명에서 59,787명으로 15,200명이 늘어 34%가 증가했다. 따라서 1906년의 교인 수 54,987명에서 1907년에는 73,844명으로 늘어 34%가 증가했다. 대부흥운동은 장로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감리교회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 1906년에 18,107명의 교인이 1907년에는 39,613명으로 무려 118%가 증가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267.84% 성장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sup>3)</sup> 이런 결과는 외국 교회에서 놀라운 반응을 보여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부흥운동은 기독교 학교의 설립을 촉진하여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인 1906년 6월 208개이던 학교가 이듬해 같은 달에는 344개로 늘어나 무려 130개 이상의 학교가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도 늘어 1906년에 3,456명이 이듬해에는 7,504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각급 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났는데, 이는 앞으로 일어날 항일운동의 선두주자들이 늘어날 것을 예시하는 것이었다.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기미 3·1독립운동이 촉발되었고, 교회가 이 운동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셋째로 전도와 선교운동이다. 각성운동은 전도와 선교로 이어진다. 각성운동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양한 형태의 선교운동이 일어났다. 은혜를 받은 젊은이들 사이에 목회와 선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대부흥운동이 휩쓸고 지나간 후 교회들은 전도와 선교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 해 6월 평양의 장로회신학교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되자 그들에게 안수를 하기 위해 독립노회가 조직되었다. 여기서 이들에게 안수를 하여 한국의 첫 목사들이 배출되었다. 노회는 전도부를 설립하고 노회 창립 기념으

3) H. G. Underwood,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February 1908): p. 100. H.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 285.

로 졸업생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전도인으로 파송했다. 평양여전도회에서는 1909년에 이선광(李善光)을 제주도에 보내 이기풍 목사를 도와 5년간 전도하게 하였다. 평양여전도회는 1908년에 조직을 완전히 갖추고 회원 1인이 1전씩 연보하여 그것으로 전도인을 파송하였다.

이어 1909년 시작된 '100만 명 구령운동'의 일환으로 김영제(金永濟) 목사를 북간도에, 김진근(金振瑾) 목사를 서간도에 전도목사로 파송하였다. 1909년 제2회 졸업생 최관홀(崔寬屹) 목사를 해삼위(海蔘威)에 파송하여 선교한 결과 50여 교회가 창설되어 노회가 설립되었다. 같은 해 1회 졸업생 한석진 목사가 동경에 파송되어 유학생을 상대로 전도하였고, 감리교회와 현지 선교부와 협력하여 초교파적으로 선교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에 사는 동포들을 위해 방화중(方華中) 목사를 파송하였다. 이러한 전도 사업에 대해 「장로교회사전회집」에 “나이 어린 조선 교회로서는 이적(異蹟)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기록하였다.

1912년 장로회 총회가 창설되었을 때 그 기념으로 중국 산둥성에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세 목사를 파송하여 해외 선교가 시작되었다. 복음을 받은 지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선교를 받은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한 것이다.

1907년 한국을 방문했던 세계 YMCA 총무였으며 후에 세계기독교학생연맹의 의장이 된 존 모트(J. R. Mott)는 한국 교회를 둘러보고 한국의 복음화가 눈앞에 와 있음을 보았고 한국이 피선교국가 중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예견하였다.<sup>4)</sup> 남장로교회 선교사 니스벳(A. M. Nisbet)도 한국이 이 세대 안에 복음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4) J. R. Mott,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Mission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8, p. 10. *The Korea Mission Field*, (May 1908): p. 67.

이러한 부흥운동과 교회 성장은 “과거 일백 년 동안에 세계를 통하여 신기독교(개신교)가 잘 발전되는 중 조선에서만 급속도로 발전된 일은 었던 나라에서든지 보기 드문 사실이다. 조선의 40년 간의 신기독교의 통계표는 다른 나라의 일백년 간의 그것보다 더 나은 성적을 보고한다”<sup>5)</sup>라는 기록은 한국 교회 성장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부흥운동은 일제 억압이라는 민족사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교회가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난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주었다.

넷째로 인권신장운동이 일어나 인간 차별의 전통이 서서히 붕괴되는 과정을 겪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서열적 차별화가 이루어져 사회 계급의 서열은 파괴될 수 없고 신분의 상승은 불가능했다. 부흥운동은 이런 전통을 서서히 부수기 시작하였다.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으로 짓눌려 있던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차별 전통이 깨어지고, 여성이 남성과 같은 위치에 서는 일이 시작되었다. 예배당 안에도 남, 여 좌석이 구별되어 있었으나 부흥운동 전후로 남, 여 사이의 회장이 겹쳤고, 여자들도 교회에서 남자들과 같이 직분을 받아 봉사하기 시작하였다.

상인계급에서는 부인에게 하대(下待)하던 습관을 버리고, 황해도 감바위교회에서는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쓸 것과 한 자리에서 식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차별받던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된 좋은 예이다. 각지에 여학교들이 설립되면서 남자 아이들과 같이 여자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도 전통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권신장이었다.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와 같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부린 것이 아니고, 같은 조선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조상이 노비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당연히 노비가 되는 사회 질서에 따라 많은 노비들이 양반과

5) 로해리, 「조선기독교교회략사」(조선기독교교회서회, 1933), p. 51.

부잣집에서 시달림을 당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하여 노비를 면천(免賤)하고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바로 전 해에 노비를 해방시킨 사례가 있다. 언더우드가 발행한 <그리스도신문>에 의하면 평양 서촌 창마을에 살던 리씨는 예수 믿은 후에 1천 냥을 주고 산 계집종을 면천(免賤)시키고 노비문서를 불태우는 혁명적인 일을 감행하였다. 1천 냥이 넘는 큰 재산 문서를 불 지르고, 노비를 수양딸로 삼는 혁신은 복음의 위력이었다.

다섯째 연합운동의 실현이다. 1907년 대부흥운동을 전후로 하여 복음의 정신에 따라 하나 되는 일에 치중하였다. 1905년 9월 이화학당 예배실에서 장로교회 4선교부, 감리교회 2선교부는 한국 복음주의 선교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를 형성하였다. 이 공의회의 목적은 단순한 친교와 협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하나의 개신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미국 남, 북, 캐나다,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는 장로교공의회(Presbyterian Council)를 만들었다. 장로교회는 부흥운동이 태동하고 나서 2년 후인 1905년에 북감리교회와 한반도 지역을 분할하여 선교하기로 하였고, 1907년에는 남감리교회와 북장로교회 사이에, 1908년에는 남감리교회와 캐나다장로교회 사이에 지역분할(예양협정, Comity Arrangement)을 이루었다.

비록 처음 목적했던 한국에서 하나의 개신교회를 세우려는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성서공회, 대한성교서회, 잡지, 신문, 찬송가 발행의 합동은 이루어져 연합의 성과를 거두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의 출발도 평양의 선교사들이 장·감 연합으로 성경공부를 열면서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집회를 가진 데서 비롯되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B. 백만 명 구령운동

백만 명 구령운동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끝난 지 2년 후인 1909년부터 시작되었다. 대부흥의 물결이 2, 3년 지나자 부흥의 열기가 차차 식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의 열성이 줄기 시작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일제가 기왕에 시작하였던 한국 식민지화를 가속화하던니, 급기야 1910년 8월 한국을 강점 병탄하여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따른 사회의 불안과 모든 사람들의 좌절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때에 낙담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일깨우면서 교회의 부흥운동을 재개하게 되었는데 이 운동이 곧 “100만 명 구령운동(The Million Souls for Christ)”이었다.

이 운동은 1909년 개성에서 감리교 선교사 스톱스(M. B. Stokes), 갬블(F. K. Gamble), 리이드(Miss W. T. Reid) 등 3인이 다시 한국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당기기 위해 사경회와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갖기로 하고 한국 교인 몇 사람과 함께 산상 기도회를 개최한 데서 비롯되었다.<sup>6)</sup> 기도회에 참석했던 선교사들은 1909년 9월에 개최되었던 남감리교회 연차대회에 참석하여 “20만 명의 심령을 그리스도에게”라는 표어를 채택하도록 요청하여 이 표어가 채택되었다.<sup>7)</sup> 이 연차대회가 폐회된 후 바로 열렸던 복음주의 선교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the Evangelical Missions)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공의회에 참석한 위의 3인 선교사들은 이 공의회의 전도 목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백만 명 심령을 그리스도에게로”였다. 여기서 100만 명 구령운동이 정식으로 출범

6) G. T. Brown, *Mission to Korea*, p. 78 이하 참조.

7) *The Annual Report,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for 1909*, p. 87. G. T. B. Davis, *Korea for Christ*, pp. 6-7.

8) 당시의 기독교 인구를 백락준 박사는 학습교인까지 불과 8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韓國改新敎史』, p. 403) 이는 잘못된 기록으로 세례교인이 8천 명이었다. C. A. Clark, *Korean Church and Nevius Methods*, p. 171 참조.



하게 된 것이다.

당시의 기독교 인구가 불과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될 때<sup>9)</sup>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실현하기 어려운 숫자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전국민을 상대로 대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런 목표를 정하고 나가게 된 것이다. 이때를 기하여 마침 세계를 순회하면서 전도 강연을 하던 유명한 부흥사였던 챔펜(W. Chapman)과 알렉산더(C. M. Alexander) 일행이 내한하였다. 이들은 즉시 이 100만 명 구령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먼저 선교사들을 상대로 5일 동안 전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집회를 마치고 곧 떠났으나 일행 중 한 사람인 데이비스(G. T. B. Davis)는 한국에 남아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를 계속하였다. 일제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긴 한국 민족은 경상도의 한 관리가 말한 대로,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달리 아무 도리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이었다.

1910년 선천에서 모인 장로회 제4회 독노회에서도 백만 명 구령운동에 적극 참여기로 의결하고, 각 교회가 10월 24일부터 1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기로 결의하고 7대리회에서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이 일을 추진하게 하였으니, 이 날은 한국이 일제에 병합된 지 꼭 20일이 지난 때였다. 이 운동은 한국에서 전도를 위해 “남녀노소, 신자들과 학생, 평신도와 교역자들이 전심전력하여 이 표어의 구현에 노력한”<sup>9)</sup> 전국적인 운동이었다.

이 운동 기간 동안 나타났던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교인들이 이 운동을 위해 물질적으로 헌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바치는 소위 “날 연보(日捐補, Day Offering)”를 한 사실이다. 즉 헌금을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일주일에 하루 혹은 열흘에 하루를 십일조하여 그들의 시

간을 바쳐서 전도 사업에 투신한 것이다. 선교사 로즈(H. A. Rhodes)는 한국 교인들이 “교회를 처음 조직할 때부터 ‘시간 연보’를 장려<sup>10)</sup>했다”고 기록하였다. 돈이 없어 유급 전도사를 파송할 수 없는 곳에서는 신자들이 생활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내어 쪽복음서와 기독교 문서들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다. 이 운동은 신자들 간에 큰 호응을 얻게 되어 평양에서만도 1천 명의 신자들이 연 2만 2천 일을 연보하였으며, 황해도 재령에서는 1만 일이 연보되었다. 비록 북부지방처럼 큰 호응은 없었지만 남부지방에서도 이 운동이 일어나 군산지방에서는 850일이, 전주에서는 3,349일이 연보되었다.<sup>11)</sup> 이렇게 연보된 날 수가 이 기간 동안에 10만 일이 넘었다는 보고가 나왔다.

복음을 읽고 믿으라는 간곡한 권고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한국인 가정 치고 심방받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었고, 심방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다.<sup>12)</sup>

비록 그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평양에서 일하고 있던 북장로교회의 베어드(W. Baird) 선교사는, “온 교회가 굳센 믿음과 유례 없는 열성으로 이 운동에 가담하였다. 복음을 이처럼 전국적으로 전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모든 일이 다 알려지게 되면 백만 명 이상의 영혼이 이번 100만 명 신자화운동이 있던 기간에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리라고 믿는다”<sup>13)</sup>라고 말하였는데, 그의 말과 이 100만 명이 결신하지 못했다고 해도, 100만 명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면,<sup>14)</sup> 언젠

10) 로해리, 「조선기독교교회력사」(조선기독교교회서회, 1933), p. 53.

11) A. M. Nisbet, *Day In and Day Out in Korea*, p. 91. 전주지방에서 연보된 날 수를 셈하면 한 사람이 9년을 전도하는 기간과 맞먹는 기간이 된다. 어떤 목수 한 사람은 한 달을 연보하기도 했는데, 그는 전에도 자기 고향 예배당을 자기 손으로 건축한 사람이었다.

12) “The Million Movement and Its Results,” *The Korea Mission Field*(January 1911): p. 5.

13) W. M. Baird, “An Address to the Presbyterian Mission on the Million Movement,” *The Korea Mission Field*(November 1911): p. 310.

14) 남장로교회 선교사 A. M. Nisbet는 그의 책 *Day In and Day Out in Korea*, p. 90에서 “6개월 사이에 50만 권이 넘는 쪽복음서가 배포되었다”라고 기록하였다.

9) 白樂濬, 「韓國改新敎史」, p. 404.

가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 올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계속해야 될 것을 확신해야 했던 것이다.

### C. 진흥운동

1910년 한일병탄이 된 이후 일제는 한국을 철저히 유린하고 탄압과 수탈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기독교회를 막무가내로 탄압하여 그 씨를 말리려는 책동을 지속하였다. 이에 격분한 겨레와 교회가 혼연 일체 되어 1919년 거족적인 독립운동이 터지게 되었다. 그러나 물리적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 운동도 결국 무위(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민족과 교회가 다시 일제의 간악한 수탈정책에 시달리고 있을 때 장로교회는 교회의 발전을 위한 ‘진흥운동(振興運動: The Forward Movement)’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sup>15)</sup> 독립운동의 좌절과 일제의 교묘한 박해의 손길을 거둬 환인한 교회는 영적 힘을 비축하여 이 교회적, 민족적 암흑기를 헤쳐 나갈 방도를 복음 선교의 길에서 찾아 나섰다. 이 진흥운동은 1기와 2기로 나누어 한국 선교 50주년을 맞이하는 1934년까지 지속하기로 하였다. 제1기는 1919년부터 1925년까지, 제2기는 1929년부터 1934년까지로 정했다. 선교사 블레어(W. N. Blair)를 위원장으로 진흥부를 설치하고 전국 12개 노회에서 대표 각 3인씩을 선출하여 총 36명으로 위원을 정하였다.<sup>16)</sup>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진흥년(振興年)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첫해에는 기도와 개인 전도, 둘째 해에는 사경회와 단체 전도,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유년주일학교에 역점을 두고 진흥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둘째 해에 시행한 사경회는 각 교회가 연합하여 연 1-2회 도사경회(都査經會)를 개최하여 연합운동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다. 이 운동은 개인기도,

집단기도, 교회 단위의 기도로 뒷받침되었다. 이 진흥운동의 결과로 1919년에 교회 수 1,705개에 교인 수 144,062인이 1926년에는 교회 수 2,277개, 교인 수 194,498명으로 약 5만 명이 늘어났다.<sup>17)</sup> 제2기가 끝난 1934년의 통계를 보면 교회 수 2,729개, 교인 총수가 298,431명으로, 처음 이 운동이 시작하던 1919년부터 선교 50주년이 되는 1934년까지 교회는 1천 개 이상 그리고 교인은 약 15만 명이 늘어 두 배 이상 증가한 확실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sup>18)</sup>

진흥운동은 1930년대 말에 닥쳐올 일제의 한국 교회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에 대비한 교회의 양적 그리고 영적 강화였다. 이 모든 결실은 개인과 교회가 기도하면서 전도운동에 매진한 결과였다.

### D. 삼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해방 후 한국 교회는 혼란과 분열이 있는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이런 와중에 교회의 재건과 부흥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었다. 근래 부흥운동은 1960년의 “삼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를 정한 부흥전도운동이다. 한국 교회는 개신교 첫 순교자 토머스 목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뿌린 지 100년이 되는 해이며, 한국 교회가 선교를 받은 지 80주년이 되는 1966년을 맞이하여 전국적인 복음화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초교파적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주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던 김활란 박사에 의해 추진되었다. 처음에는 개신교단 교회들만 참여하였던 이 운동에 로마 가톨릭 교회도 동참하여 범 교회적인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운동본부에는 해외의 저명 부흥사를 초청하여 부흥집회를 갖기로 하고 중국인

17) 위의 책, 제10회(1926)와 제6회(1919년) 총계표 참조.

18) 한국 교회는 1920년에서 1925년까지 5년간 신자수가 약 30% 증가하였는데, 세례교인이 69,000명에서 89,000명으로 늘었다.

15) 「大韓예수교長老會總會 第8回(1919년)會議錄」, p. 9.

16) 위의 책.

부흥사 조세광(趙世光) 목사를 초청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부흥집회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내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복음화운동은 가시적인 성과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다.<sup>19)</sup>

특히 이 운동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요소로 갈렸던 교회들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면에서 좋은 성과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개신교가 주축이 되어 시작한 이 운동에 가톨릭 교회까지 동조하였고, N. C. C.가 주동이 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이 아닌가 하고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보수 교회들도 의심을 버리고 동참한 것은 신학적 논쟁에 있어서는 찬·반이 갈릴 수 있어도, 민족복음화운동에 찬·반이 있을 수 없다는 좋은 교훈을 남겨 주었다

#### E. 1970년대의 대형집회

1970년대 교회가 급속히 성장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파를 초월한 여러 대형 집회들이 있었던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70년대의 첫 대형집회는 1973년 5월 미국의 저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 초청 부흥성회였다. 이 대회는 특히 초교파적인 대집회로서 여기에 동참하는 교파만 해도 17개 교단이 넘었다.

이 대회는 본 대회가 열리기 전에 각지에서 예비대회가 열렸는데 이 지방대회에 연인원 120만 명이 동원되었고, 결신자만도 16,703명이나 되었다. 빌리 그레이엄이 설교를 마치고 결신자는 일어나라고 하자 2만여 명이 일어나 첫 날부터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빌리 그레이엄은 박정희 대통령도 방문하고 성경을 선물하였으며, “정신적인 강대국을 영도

하는 박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의하여 약 3분간 한국민과 박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였다. 이 대회를 통해 얻어진 결신자는 통산 3만 7천 명으로 기록되었다.<sup>20)</sup>

다음으로 1974년 8월에 엑스포로대회(성령의 제3폭발)가 한국대학생선교회(C. C. C.) 주재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렸다. “예수 혁명—성령의 제3폭발”이라는 제목으로 세계대학생선교회 총재 빌 브라이트(Bill Bright) 박사를 위시한 국내외의 저명인사들이 강사로 동원되었다. 이 대회는 세계 90여 개국으로부터 3천여 명이 참가하는 등 세계적인 전도집회로서, 다른 대회와는 달리 일과성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훈련을 시켜 계속해서 전도케 하는 합숙 전도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다.

1977년 8월에는 “77민족 복음화성회”가 여의도광장에서 열렸다. 이 집회를 계획하게 된 것은 1973년의 빌리 그레이엄대회와 1974년의 엑스포로대회를 거치면서, 한국인에 의한 자주적인 대민족 부흥집회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부흥사협의회를 중심으로 1907년 대부흥운동의 70주년이 되는 1977년에 대회를 개최기로 하고 준비된 것이었다. 첫 날 80만 성도들이 모이는 열성을 보였고, 밤에는 30만 성도가 남아서 철야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다.<sup>21)</sup>

1970년대의 이 같은 대규모 전도집회 결과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1970년대 말 한국의 종교인 통계는 한국종교연구소의 집계에 의하면, 총인구 3천7백만 중 80%인 2천9백18만 명, 개신교도가 7백1만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에 해당되고, 그 중 장로교인이 47%인 2백 87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sup>22)</sup> 1970년대의 대형집회는

20) 〈教會聯合新報〉, 1973. 6. 10.

21) 〈基督公報〉, 1977. 8. 20.

22) 위 신문, 1980. 6. 28.

19) 김인수, op. cit., p. 653 이하 참조.

군사정부의 비호 하에 이루어졌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으나 교회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1980년대 이후로는 특별한 대형 부흥운동은 없었고,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대회가 있어 한국 교회 성장과 이에 따른 그들을 반추하면서 새로운 세기의 교회 정립에 매진하였다.

### III. 군선 교와 집단세례

#### A. 세례(침례)의 정의

세례(洗禮) 혹은 침례(浸禮)라는 용어는 희랍어 ‘βαπτίζω’에 연원한다. 세례(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데서 비롯된 세례 의식은 마침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이후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 기독교의 성례로 정착된다.

세례나 침례냐는 ‘βαπτίζω’라는 단어의 문자적 해석의 문제로, 머리에 물을 뿌리(sprinkle)느냐, 몸을 물속에 완전히 담그(immersing)느냐에 따라 세례와 침례가 구별된다. 침례를 주장하는 침례교회 계통의 교파들이 침례를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두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유아세례가 부인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세례를 주장하는 교파들이 행하는 유아세례를 비 성서적이라는 것이다. 성경 어느 곳에도 유아세례를 주라는 데가 없다는 것이다. 세례는 반드시 본인이 자의식을 가지고, 예수가 구주임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행해져야지, 부모가 신앙을 고백한다

고 자의식이 없는 유아에게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으로 교회개혁 시기에 재침례파(Anabaptists)가 일어났고, 그들은 이단으로 몰려 무참한 죽음과 탄압을 받은 역사를 갖고 있다.<sup>23)</sup>

여기서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깊이 논의할 생각은 없다. 세례나 침례를 막론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세례 혹은 침례는 성인인 현역 군인에게 시행하는 것이므로 상관 없다. 세례를 베풀거나 침례를 베푸는 것은 자기 교파의 교리대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세례나 침례를 막론하고 성경적 입장에서 그것은 반드시 본인의 철저한 신앙고백을 전제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거론하겠다.

#### B. 집단세례의 역사

##### 1. 세계 교회사 속의 집단세례

일반적으로 세례(침례: 다음부터는 세례라 칭할 때 침례도 포함함)는 개인이 신앙을 고백할 때, 그 고백자에게 베푸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한 교회에서 세례받을 후보자들을 일정 기간 교육하고 훈련시킨 뒤, 날짜를 정하여 함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이다. 교인들의 숫자가 적은 교회에서는 세례받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아 집단세례라는 용어를 쓰는 데 무리가 있다. 그러나 교인이 수천, 수만 명 되는 대형교회에서는 한 날 세례받는 숫자가 몇십 혹은 몇백 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집단세례라는 용어가 쓰일 수도 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용어의 정의가 있다. ‘집단이라고 할 때 몇 명 이상을 집단으로 할 것인가’이다. 서너 명이나 대여섯 명을 놓고 세

23)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53), 23장 이하 참조.

례식을 할 때는 아무도 집단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몇 명 이상을 집단이라고 할 것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승천 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고 나가 전도할 때 하루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행 2:41). 하루에 수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면 이는 분명 집단세례일 것이다. 그 외에도 비록 기록은 되지 않았어도 수천, 혹은 수백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집단세례가 초대교회에서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집단세례는 다음과 같다. 프랑크족의 왕 클로비스(Clovis)가 가톨릭 신앙을 가진 브르군디(Burgundian)국의 공주 클로틸다(Clotilda)를 아내로 맞아, 그 아내의 권유를 받아 오던 중 496년 알레마니(Alemanni)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독교로 개종을 선포하고 그 해 성탄절에 자기 자녀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는 휘하의 군인에게 세례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들도 다른 신민(臣民) 3천 명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역사에 3천 명 세례는 둘째 번이라는 기록을 남겼다.<sup>24)</sup> 이 기록 이외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클로비스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Constantine the Great)의 기독교 공인(주후 313)에 의해 기독교에 자유가 주어졌고, 395년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황제의 명에 따라 로마 제국은 기독교만이 유일 합법 종교임을 선포했다. 따라서 기존의 모든 종교는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기독교는 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호혜 정책에 힘입어 선교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세례자 수가 급증하였다. 중세로 접어들면서 선교는 더욱 활성화되어 종족마다 기독교로의 전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590년 로마 교황에 취임한 그레고리(Gregory the Great)가 596년 수도사

24)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4th, ed. (New York: Scribner, 1985), p. 150. 위의 책, p. 101, 272 참조.

오거스틴<sup>25)</sup>을 영국 선교사로 파송하여 켄트(Kent) 왕 에테르베르트(Etherbert)의 선교 허락을 받고 켄터베리에 본부를 정하고 선교하였다. 켄트 왕의 왕후가 가톨릭 신앙을 가진 프랑크(Franks)의 공주였기에 아내의 영향과 오거스틴의 권유로 에테르베르트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모든 영국민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선포한다. 이 때 “수천 명의 신민들이 그를 따라 세례 받(盤)으로 나갔다(thousands of his subjects followed him to the baptismal font).”<sup>26)</sup> 이렇게 한 부족이나 왕국의 국왕이 개종하면서 그 뒤를 따라 신민이 집단세례를 받는 경우는 중세에 유럽 선교사에서 흔한 일이었다.

특히 슬라브족(Slaves)의 왕 블라디미르(Vladimir)가 987년 정교회(Greek Orthodox Church)를 국교로 선포하고 모든 슬라브인들은 기독교를 믿으라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sup>27)</sup> 이 경우 분명히 집단세례가 있었을 것을 예견하지만 집단세례를 베풀었다는 확실한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다.

유럽 전역이 기독교 국가(Christendom)가 된 후부터는 성인세례는 더 이상 없어지고, 유아세례만 남게 되어 집단세례라는 자체가 사라졌다.

근래에 이르러 아시아 선교 역사에서 집단세례 사례가 있다. 1549년 로마 교회의 아시아 선교의 성자 사비에르(F. Xavier)가 인도의 남쪽 코모린(Komorin) 곳의 파라바스(Paravas) 어촌 지역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전체가 세례를 받는 일을 발견했다. 이들이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모슬렘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약 8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sup>28)</sup> 이 사건 역시 세례받는 동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5) 초기 교회의 신학자 Augustinus와 영어명으로 同名異人임.

26)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53), p. 346.

27)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p. 264.

28) S. Moffet,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New York: Orbis, 2005), pp. 10-11.



## 2.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집단세례

### a. 의주의 요단강 세례

천주교회가 한국에 전래된 후에 가톨릭 교회에서 집단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개신교회에서는 첫 집단세례 기록이 있다. 그것은 한국에 목사 선교사로 처음 나온 언더우드(Underwood)가 1897년 11월 전도를 위해 북쪽으로 여행을 갔다가 의주(오늘의 신의주)에서 33명에게 세례를 준 일이 있었다. 언더우드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1백여 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곱게 빗고 깨끗하게 옷을 빨아 다려 입고 모여 있다가 대표가 나와 언더우드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가 없어서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오셨으니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내한하기 이전에 의주 청년들인 이성하, 김진기, 백홍준 등이 만주에 홍삼 장사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던 로스(John Ross)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파송을 받은 로스는 그들에게 자기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 사례금을 후히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로스가 머물고 있던 심양으로 가서 로스와 로스의 처남인 매킨타이어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다. 이 과정에서 로스는 그들에게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일에 착수하여 복음서들이 하나씩 번역되어 나왔는데, 맨 먼저 1882년에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한지 51쪽으로 엮어져 나왔다. 이를 ‘쪽복음서’라 불렀다.<sup>29)</sup>

이 과정에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1876년에 그곳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한국인 최초의 개신교 신자가 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귀국하면서 쪽복음서를 다량 밀반입하여 서북지방 여러 곳을 다니며 이것들을 팔았고[賣書], 또 이것은 좋은 책이니 사서 읽어

보라고 권하며[勸書]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이 쪽복음서를 사 읽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더우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북부 지방 전역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진 광범위한 씨 뿌림과 반포된 책들은 효과가 있었음이 분명했고, 그런 방식의 효과적인 사역의 기회가 그 어느 곳보다 많아 보였다……가장 유망한 사역의 지역에서 시작되었는데, 한번은 주변 마을과 군(郡)들로부터 세례받고 입교하기를 원하는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모여들었다.<sup>30)</sup>

언더우드는 이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문답을 하였다.<sup>31)</sup> 대체로 기독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막연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대부분 불합격시키고 그 중 확실한 신앙을 고백한 33명만을 합격시켰다.

만일 7명이 한꺼번에 세례받은 것이 집단세례라 한다면, 언더우드가 의주에서 33인에게 세례를 주던 같은 해인 1897년 가을, 경기도 솔내에 내려가 일곱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도 포함될 수 있다.<sup>32)</sup>

1907년 9월 한국 장로교회가 첫 노회를 조직하고 평양장로회신학교 졸업생 7인에게 안수식을 거행할 때 장로교회 교인 총수가 70,000명에 세례 교인수가 19,000명이었다.<sup>33)</sup> 1885년 첫 선교사가 들어온 이후 불과 20년 만에 수세자가 20,000명 가까이 되었다고<sup>34)</sup>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증거이다. 노회가 조직되던

30) H. A. Underwood, *The Call of Korea, Political-Social-Religious*(New York: Fleming H. Revell, 1908), pp. 137-138.

31) 참고로 초창기 교회의 세례문답은 논자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 p. 242를 참조.

32) 위의 책, p. 158.

33) 위의 책, p. 349.

34) Shearer, R. E.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이승익 역. 「韓國教會成長史」(大韓基督教書會, 1972), p. 284 참조.

29) 김인수, op.cit., p. 112.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의 여파로 그 해 세례 받은 숫자만도 1906년에 12,506명에서 1907년에 15,097명으로 약 2,500명이나 늘어났다. 한 해 사이에 약 2,500명의 수세자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인구 수로나 교회 수로 볼 때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교회도, 목사도 몇 되지 않던 때에 수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집단세례가 있었음을 짐작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한국 교회 전통에서 집단세례는 일반적인 행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1907년 평양대부흥 이후 한국 교회 교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예는 별로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집단세례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정한다. 집단세례라는 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훨씬 후대인 1970년대에 이르러 육군에서부터 비롯된다.

#### b. 전군신자화(全軍信者化)운동과 합동세례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군대생활은 힘들고 외롭고 고난의 기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간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한정직 목사는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고기가 많은 곳에서 낚아야 한다”는 명언을 한 일이 있었다. 군대는 확실히 많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좋은 어장이다.

전군신자화운동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당시 1군 사령관이었던 한신(韓信)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 군대가 막강한 전투력을 갖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바로 그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신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대한민국 군대를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1군 산하 모든 장병들이 신앙을 갖도록 지도하라고 명령한 데서 시발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군종감실은 이 기회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군신자화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전국 교회는 군복음화 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훈련병들이 훈련에 치져 있을 때 영혼의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논산 훈련소에 1천 5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성서공회에서는 성서 46만 권을 당시 군종감 한준섭 대령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국제기드온협회에서는 3백만 예비군에게 성경을 전달하겠다고 국제기드온 총무 헨더슨 씨가 약속하였다. 전군신자화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후원회에서는 일선 군목들에게 오토바이 보급 운동을 전개하여 1차분으로 150대를 지원하기도 했다.<sup>35)</sup>

전군신자화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소위 “합동세례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세례식이 군부대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합동세례식은 심지어 군목도 없는 부대에서 군종 사병이 열심히 전도하여 1972년 10월 28일 장교 17명, 하사관 56명, 사병 449명 등 500여 명이 합동으로 세례를 받는 획기적인 일도 일어났다.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는 사관후보생 1,132명, 기간장 · 사병 473명, 도합 1,605명의 합동 세례식이 1972년 11월 10일 동교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합동세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한꺼번에 3,472명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육군 7528부대(군종목사 김태동 중령)에서는 1973년 10월 29일 동 부대 연병장에서 3,472명에 대한 야전 합동세례식이 거행되었다.<sup>36)</sup> 3천 명 이상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일은 교회사상 드문 일임에 틀림없다. 전군신자화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1970년에 8만 8천 명이었던 기독교 신자가 4년 후인 1974년에는 17만 8천 명으로 늘어났다.<sup>37)</sup>

35) 〈基督公報〉, 1972. 11. 11.

36) 위의 신문, 1973. 11. 3.

37) 김인수, op. cit., p. 664.

그동안 이 운동을 위해 성서공회가 1972년 9월까지 46만 1천 권의 성서를 특별 제작하여 기증했고,<sup>38)</sup> 기드온협회는 매년 18~25만 권의 성서를 부대별로 직접 전달했으며, 아세아복음선교회 등에서 지휘관용 성경전서 200여 권씩을 전달했다. 기독교 신문 보급도 크게 활성화되어 매주 〈기독교공보〉 7천여 부와 〈크리스찬신문〉 2천여 부가 보급되었고, 「가정문서선교회」 20만 부 및 루터교 등에서 실시하는 통신강좌가 수만 부씩 지원되었다. 한경직 목사가 지은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자 3만 부, 「예수님은 누구신가」 1만 부도 군인들에게 보급되었다. 일선 군목들과 군중사병 등의 활동과 후방 교회와 기관, 그리고 후원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전국 신자화운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C. 집단세례의 순기능과 역기능

### 1. 순기능

#### a. 기독교인 숫자의 증가

군대에서의 집단세례는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수세 장병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든지 혹은 강압에 의해서든지 일단 세례를 받고 나면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됨으로써 기독교인으로 자처하게 된다. 비록 신앙이 약해져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리고 제대 후 사회에 나가서 살 때도 자신이 군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단 세례를 받은 병사는 불교나 천주교회로 쉽게 가지 않는다. 누가 가자고 권면해도 자신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게 된다. 그리고 군인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 기독교 장병이 확실히

늘어나는 결과가 되고, 제대 후 사회에 나가서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신자로 살아가는 순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비록 타의에 의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어,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영향을 주어 그가 비양심적인 행위를 할 때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라는 한 가닥 양심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런 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또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고 살다가도 어떤 계기에 의해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될 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쉽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 b. 군 사기 진작

1970년대 초 육군에서 일어났던 전군신자화운동은 당시 1군 사령관이었던 한신 장군에 의해 비롯되었다. 그는 군사력은 병사들의 정신 무장에 달려 있고, 정신 무장은 무엇보다 종교적 힘이 밑바탕 되는 것이 제일이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터득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도 1종교 갖기 운동을 시도했던 것이다. 저명한 전쟁이론가인 독일의 클라우제비츠도 “전력이란 병사들의 정신력과 군 장비의 총화”라고 얘기한 바 있다. 아무리 현대식 무기로 완벽한 장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그것을 운용할 병사의 정신 상태가 이완되어 있으면 이것들은 고철에 불과하다.

수세 장병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라는 군선교의 목표처럼 확실한 국가관과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전쟁에 임해야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다면 그는 기독교 장병으로써 종교를 전혀 갖지 않은 사람보다 사생관이 확실하고 국가와 민족과 가족을 위해 헌신, 희생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군복무를 하게 될 것이다.

38) 〈基督公報〉, 1972. 2. 23.

### c. 군 내의 사고 감소

군에서 지휘관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전쟁 시에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겠지만, 평상시에는 무엇보다 안전사고이다. 사고가 자주 터지는 부대는 그 지휘관이 지휘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 부대의 사기가 그만큼 가라앉게 되어 모든 면에서 능률과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병사들이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면 그 정신력이 살아 있어 매사에 성실,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안전사고를 비롯한 군부대 내의 사고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다음의 표는 어떤 부대의 통계로, 세례교인의 증가와 더불어 사고가 감소되는 사실을 볼 수 있다.<sup>39)</sup>

세례신자 증가와 사고 감소

(단위: 명)

연도	세례자 수	사고 건수	기타
1996	2,528	112	
1997	2,478	113	
1998	4,308	74	
1999	1,943	34	6월 현재

위의 표에서 보는 것같이 수세 병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 2. 역기능

### a. 강압에 의한 성례

필자가 1970년대 초 군목으로 활동할 때 합동세례가 한참 성행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실적 위주로 합동세례를 거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혹은 대대장이나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수세자

들이 강제 징발되어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세례를 받은 병사들도 적지 않았다. 내무반에서 혹은 부서에서 고참들이 말단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안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합동세례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로 가끔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1년에도 몇 번씩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있으므로 한번 세례를 받은 장병이 다시 세례를 받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유행하는 말로 ‘세례 사역병’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고, 한 장병은 세례를 받고 나서 “나, 오늘로 세 번 세례받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세례는 성례이고 성례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인데 이 예식이 한낱 군목 실적 위주의 한 형태로 전락한 것은 개탄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집단세례를 많이, 자주 하는 군목은 유능한 군목이고 그렇지 않은 군목은 무능한 군목이라는 낙인이 찍혀 고가표나 진급에 영향을 미친 것은 기독교의 성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라 일컫지 않을 수 없다. 군 생활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장병들에게 사회에서보다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하는 것은 두말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군목과 군중병의 전도 활동에 따라 많은 사람이 참회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옛날 중국 산둥성에서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들처럼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쌀을 선물로 주자 많은 사람들이 쌀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아 그들을 ‘쌀교인(the rice Christians)’이라 한 것처럼 명목상의 신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sup>40)</sup> 이는 결코 바람직한 군선교 방향이라 말할 수 없다. 한국 초기 교회 선교 시에도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현

40) 산둥성에는 논이 없어 쌀이 생산되지 않아 잡곡을 주식으로 하였기에 쌀이 귀하고 비싸서 쌀은 귀한 선물이었다.

41) 초기 선교사 알렌이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총무였던 엘린우드(F. F. Ellinwood)에게 써 보낸 1890년 2월 28일자 편지.

39) 〈軍福音化報〉, 1999. 6. 30. 3면.

금 500냥(미화 33.1/8cent)을 주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바로 돈벌이 되는 직업에 지원하는 일이 있어 개탄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sup>41)</sup> 이런 불순한 동기나 목적을 갖고 세례를 베풀거나 주는 행위는 결코 기독교적일 수 없다. 일본 선교사에 대한 한 가톨릭 교회사가는 “집단 개종은 가끔 집단 배교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sup>42)</sup>고 말한 것같이 항상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알게 된다.

#### b. 성례의 오손(汚損)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다. 성례는 어떤 경우에도 오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적을 위해 강압적으로 신자를 만들어 세례를 남발하는 것은 자제되고 재고되어야 한다. 성례(聖禮)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집행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중세 시대 교회의 수호자이며 기독교 선교의 대단한 공헌자라고 칭송 받는 샤를마뉴(Charlemagne) 대제는 게르만 민족을 교화시키면서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모슬렘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 검과 폭력으로 했던 것같이 “기독교 신앙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죽음(submission to the faith or death)”을 선택하도록 강제한 일이 있었다.<sup>43)</sup> 그러나 역사가 지난 후에 이런 형태의 전도란 결코 기독교적이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기독교는 강제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성례를 강요하여 받도록 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한국 초기 교회는 세례를 주는 데 무척 엄격했다. 적어도 6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sup>44)</sup> 준비

42) J. Jennes, *A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Japan, from It's Beginnings to the Early Meiji Era (1549-1873)* reprint (Orient Institute for Religious Research, 1973), p. 242.

43) Philip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vol. IV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53), p. 243.

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다. 세례는 성례이기에 오손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강압적으로 세례를 받은 장병들이 사회에 나가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는 음주, 흡연, 음란, 잡기(雜技) 등의 타락한 생활을 하면 그가 받은 성례가 오손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가 취중에 “나도 세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성례가 오손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물론 요즘은 과거와 달리 강압한다고 세례를 받을 병사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 c. 재세례의 문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군에서 아무 신앙적 지식이나 자각 없이 세례를 받은 장병이 제대 후 사회에 나가 활동하다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의에 의해 교회에 출석하면서 정작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자기는 이미 군에서 세례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에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군에서 받은 세례는 줄병 때 고참병들이 세례받고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으며,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은 것이기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진실로 내 입으로 내 중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를 영접하고 진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할 때가 있다.

44) 첫째는 신구약 성경을 1회 이상 통독해야 한다. 따라서 문맹자는 세례를 받지 못했다. 둘째는 1인 이상 전도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자기가 인도한 사람이 교회에 6개월 이상 꾸준히 출석하여 학습교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1인을 전도했다고 여겼다. 셋째 철이 있는 사람은 철을 정리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철저히 1부1처제를 강조하여 일부다처제를 척결했다. 넷째는 금주해야 하고, 다섯째는 금연해야 하며, 여섯째는 직업이 있어야 했다. 특히 남자는 반드시 직업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여 아무리 부자집 아들이라도 일하며 살게 했다.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과 십계명 제4계명의 “옛세 동안 힘써 일하고 이레 되는 날에 쉬라”는 말씀을 따라야 했다.

이런 경우 교회나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답은 “한번 베풀어진 성례는 다시 반복해서 베풀어서는 안 된다”이다. 이는 이미 고대 교회 도나투스(Donatus) 논쟁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리한 것이고 교회 회의가 결의한 것으로 한번 베풀어진 성례는 다시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45)</sup> 로마제국 박해 시절 신앙을 배반한 배교자(apostasy)였던 자가 박해의 기간이 지나고 교회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다시 교회에 돌아와 성직자가 되고 그 성직자의 손으로 베풀어진 성례는 무효라는 주장을 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가 성삼위 즉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적법(適法)하게 집행되었으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유효하다”고 정의했고 교회는 이를 수용하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비록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집행된 세례라 해도 그것은 유효한 것이기에 재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치 유아세례 교인이 자기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신앙에 의해 받은 유아세례가 그에게 유효하여 후에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문답을 하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입교식만 하면 되는 것이다.

교회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하지만 본인에게는 못내 아쉽고 석연치 않은 그 무엇이 그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장로교회(통합측)에서는 폐지되었지만 세례 예비 단계인 입교문답을 하고 입교인들로 남아 있게 하고, 후에 자의에 의해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다.

## D. 바람직한 군선교 방향

### 1. 양적 성장

그렇다면 군선교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45)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윤두혁 역, 「기독교사」(생명의말씀사, 1979), p. 231 이하 참조.

우선 군선교에는 결실이 중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세례받는 장병의 숫자가 미미하다면 그 선교는 실적 없이 끝나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태국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1831년 미국 회중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여 그곳에 선교하였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각종 사회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전개하여 18년이 지났지만 단 한 사람도 세례를 주지 못했다. 실망한 회중교회는 모든 선교 사역을 중지하고 그곳에서 철수해 버리고 말았다.<sup>46)</sup>

미국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기 약 40년 전인 1840년에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병원을 세워 환자를 진료하고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18년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지 못했다. 19년 만에야 비로소 나이 추네(Nai Chune)라는 여자 하나가 세례를 받았다고 나왔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남자 하나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는 1931년에 시작된 회중교회 선교 역사로부터 계산하면 29년 만에 일어난 일로 태국 선교 30년 동안 단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준 눈물겨운 역사가 있다.<sup>47)</sup> 그 이외에 수많은 선교 현장에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선교를 포기 혹은 명맥만 유지한 지역이 적지 않다. 따라서 외적(수적) 실적은 중요하다. 한국선교를 일컬어 근대 선교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놀라운 수적 성장을 두고 하는 말이지, 질적 성장을 이르는 말이 아니다. 선교는 우선 양이다. 양이 있고서야 질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양적 성장에 우선해야 한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해도 선교 실적이 저조하면 자연히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게 현실이다.

어떤 신앙도 갖지 않은 장병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시

46)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2nd, 홍치모, 오만규 역, 「基督教宣敎史」下(성광문화사, 1982), p. 379.

47) 위의 책.

급하고 소중한 일이다. 그들이 천주교회나 불교로 가기 전에 먼저 손을 써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값어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일선에 나선 목회자들은 이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 군선교는 현장에서 수고하는 군목들, 군종사병들, 그리고 기독교장교들의 노고로 그동안 기적같이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는 3천 명 세례 정도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다. 3천 명 이상 세례를 준 사단 단위 신병교육대가 17개 부대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sup>48)</sup> 논산 훈련소에서는 한 달에 2회에 걸쳐 3천 명씩 세례를 준 일도 있다.<sup>49)</sup>

1997년 4월 19일 논산 육군 제2훈련소 연무대교회(한홍근 목사)에서 7,200명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세례를 받음으로 세계 교회 역사를 새로 써야 하는 획기적인 일이 있었다. 유사 이래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7천 명 이상이 세례를 받은 일은 아마도 처음이고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 평가해야 한다. 1990년대에 들어와 육군 제2훈련소를 시작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진중세례운동’은 전국 1천여 진중교회를 중심으로 집단세례가 진행되는 중에 연무대교회에서만 단 2년간 13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sup>50)</sup>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일반 사병 세례에도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장교 세례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92년 6월 10일 광주 상무대에서 ROTC 장교 후보생들 700명에게 세례를 준 일이 있다.<sup>51)</sup> 이렇게 많은 장교들이 한 번에 세례를 받는 일은 흔치 않다. 이는 실로 대단한

일이다. 군에서 장교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장교 1명이 투철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그 영향력은 일반 사병 10명이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다. 또한 사병은 상급자의 강압에 의해 세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장교나 그 후보생들은 누가 받으라고 받는 것이 아니다. 장교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주관에 의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고백에 의해 받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또한 그가 지휘관이 되어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이 되었을 때 그들이 군선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군목을 후원하고 군복음화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장교 세례에 치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개신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실에서<sup>52)</sup> 군에서 세례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그들이 제대한 후 사회로 돌아왔을 때 일반 교회에서 그들을 제대로 흡수만 한다면 한국 교회의 전도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 교회의 살 길에 여기에 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양적 성장의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즉 어떤 방법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다. 군에서도 사회에서와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성장에 매진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는 경쟁적으로 누가 몇 명을 세례 주었느냐 하는 숫자의 마력에 끌려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그 방법이 불법적이거나 비복음적이면 아무리 양적 성장에 많은 실적을 남겼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위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볼 때 외세를 끌어들이며 물리적인 힘으로 전교(傳敎)의 자유를 얻으려 했던 ‘황사영의 백서사건’

48) 〈軍福音化報〉, 1998. 1. 31, 1면.

49) 위의 신문, 2006. 10. 31, 3면.

50) 위의 신문, 1998. 1. 30, 6면.

51) 위의 신문, 1992. 6. 20, 1면.

52) 통계청(2006), 2005년 전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종교별 통계에 의하면 불교는 3.9% 증가로 40만 5천 명이 늘어 총 1,072만 명, 천주교는 무려 74%, 219만 5천이 증가하여 총 516만 명, 원불교는 두 배로 늘어 13만 명인데 반해 개신교는 1.6% 14만 3천명이 줄어 총 861만 명이다.



이나 대원군의 선친 남연군의 묘소를 파헤쳐 그 유골로 대원군과 협상을 벌이려 했던 페롱(S. Feron) 신부의 작태에서 볼 수 있다.<sup>53)</sup> 따라서 양적 성장을 이루되 복음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 2. 질적 성장

양적 성장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장병들의 질적 성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다음 문제로 떠오른다. 훈련소와 같이 불과 몇 주 있다 다른 곳으로 가는 장병들의 교육이 문제이다. 특히 훈련 기간 중에 주일은 유일하게 쉬는 날이어서 이들이 우선 휴식을 취해야 하고 또 개인적인 불 일도 보아야 하는 긴요한 시간에 교회에서 이들을 교육시킨다고 장시간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또 단지 예배만 드리고 가게 해서는 교육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겠다.

또 자 부대에 가셔도 우선 신병으로 고참병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그들의 허락 없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교회에서 신병들을 붙잡아 두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참이 되면 곧 제대 말년이 되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피하고 어디에 얹매어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이 또한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옛날과 같이 복무 기간이 3년쯤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요즘은 2년으로 단축되었고, 또 앞으로는 그 기간이 더욱 단축될 예정이어서 교육 시간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병영 생활 속에서 신앙의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

53) 황사영의 백서사건과 남연군 묘소 도굴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김인수, 「한국기독교교회의 역사」, p. 59, p. 85 이하를 참조할 것.

다. 따라서 군에서의 질적 양육이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한 후 일반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그들의 고향 교회에 연결시키는 ‘비전2020운동’을 통해 제대 후에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질적 교육은 군목들이나 군종사병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필요하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집단은 기독교장교들이다. 장교들, 특히 지휘관이 짬을 내어 자 부대 안의 수세자들의 신앙교육을 시킬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길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투철한 선교 의식을 가진 장교들이 필요한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또 다른 단체는 기독교부인회이다. 기독교장교부인회에서 집단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단 1회라도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지도를 한다면 수세자들의 신앙 훈련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 3. 일반 교회와의 연계 문제

군선교를 위해, 구체적으로 군인 세례를 위해 군목들을 위시한 군종병, 기독교장교, 기독교장교부인회, 군복음화 후원회가 혼연 일체가 되어 어렵고 힘든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여 수많은 병사들에게 세례를 준다. 1년에 약 20만 명에 이르는 세례자 숫자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할 만한 일이다. 이는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끊임없는 도우심과 인간 노력의 총화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세례를 주었어도 이들이 제대 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군에서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세례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전2020운동’이라는 것을 통해 수세 장병이 군대에 있을 동안 고향 교회와 연계하여 계속 관계를 갖게 해야 한다. 평소에도 소식과 위문품, 휴가 시 방문, 특히 제대하고 귀가할 때 지역 교

회가 미리 그 집에 가서 그가 돌아올 때 환영해 주고 꽃다발도 안겨 주고, 선물도 주고 교회를 안내하여 다음 주일부터 바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년, 대학부에서 이 일에 소명을 갖고 확실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일반 청년 대학생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경험해 본 이는 다 안다. 그러니 세례받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교회에 절반 이상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군선교 관계자들과 일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여 수십만 수세 장병들의 교회 정착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정착시키면 전체 교인의 5%에 불과한 20대 젊은이들로 교회가 가득 찰 날도 머지않아 올 것이다.

초기 한국에 나온 선교사들이 선교 정책을 몰라서 경험 많은 선교사를 한 사람 보내어 선교 정책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자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는 중국 산둥지방에서 오랫동안 선교활동을 했던 네비우스(J. Nevius)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귀국할 때 잠시 한국에 들러 강의하라는 명을 받고 한국에 도착한 것이 1890년이다. 그는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젊은 선교사들에게 선교 방법론을 강의했는데 이것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The Nevius Principles)’이라는 것이다. 이 정책을 기본으로 한국 선교 원칙 10개 항목을 만들었는데, 그 중 눈여겨볼 만한 것이 바로 둘째 번 항목이다. 그 내용은 ‘부녀자에게 전도하고 크리스천 소녀들을 교육하는 데 특별히 힘을 쓴다. 가정 주부들, 곧 여성들이 후대의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는 것이었다. 이 조항이 향후 한국 교회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sup>54)</sup>

선교사들은 소녀들을 확실한 크리스천으로 만들면 그들이 후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생산하게 되고,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신앙 지도에 따라 자

동으로 교인이 되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에서 세례를 받은 장병이 후에 결혼하게 되면 그 부인과 자녀까지도 교인이 되는, 두 배 혹은 세 배로 교인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장병 한 사람의 세례는 본인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내지(內地) 선교는 특별히 신경 쓸 것 없고, 군에서 세례받고 나온 제대군인들만 확실히 확보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는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비해 경비와 효과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인 선교이다.

#### 4. 군대 내의 선교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부대라는 한계 속에서 전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보다 효율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선 누구나가 인정하고 경험해 본 일이지만 군 생활은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다. 엄격한 위계질서 속의 군 생활에서는 하급자보다 상급자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 속의 병사들은 항상 긴장 속에 있게 되고, 긴장은 잘못하면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목 이외의 다른 장교들이 사병들의 고충을 들어 주고 친절히 상담해 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 또 일반 상관들이나 장교들에게 가슴속 깊은 얘기를 털어 놓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군목은 이런 문제 있는 사병들이 언제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와서 자기 마음의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안은 병사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상담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교회나 사무실은 병사들이 시간이 날 때 언제나 쉽게 찾아와서

54) 김인수, op. cit., p. 198 이하 참조.

설 수 있는 분위기와 장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겠지만 그래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이런 외적 환경 조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조용한 음악과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서적과 자료를 준비하여 필요한 병사들이 언제나 손에 넣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군목실에 찾아오는 병사들이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시고,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일단 군목실과 친해지게 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의 말씀과 같이 우리 곁에 스치고 지나가는 병사 한 사람의 영혼은 주님이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구하기를 바라는 귀한 생명이다.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 5. 민간 교회의 관심 환기

선교는 합동 작전이다. 개인이나 교회, 또는 기관도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지만 보다 효율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합동 작전이 필요하다. 그 합동 작전이란 군에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늘 가던 교회, 가던 목사들만 초청하지 말고 과거에 가지 않았던 목사들을 폭넓게 초청해서 참관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면 관심과 기도와 격려를 하게 되리라 믿는다. “비전2020운동”의 일환으로 모든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군선교 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고, 노회나 총회에서도 관심과 기도를 기울여야 하겠다.

씨 뿌리고 착근(着根)하기까지를 군에서 한다면, 일반 교회에서는 물주고 길러서 결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오래된 기독교 국가들의 교회, 즉 유럽 교회나 미주 교회들에 젊은이

들이 없어지고 노인 교인들은 세상을 떠남으로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당은 모텔과 술집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젊은이 전도요, 젊은이 전도에 실패하면 우리 교회의 희망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젊은이 선교의 길은 바로 군선교에 있다. 군에서 매년 배출하는 세례자들만 확실히 잡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 IV.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 부흥의 역사를 차례로 훑어보았고, 근년에 일기 시작한 군선교에 대해 살펴보았다. 1970년대부터 시작한 전군신자화운동과 합동세례식, 1990년대의 군복음화운동의 ‘진중세례식’, 그리고 “비전2020운동”의 과정과 현재 그리고 그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모범 청년은 모두 군대에 간다. 어떤 사람은 “군에 가서 썩는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군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의 말이다. 메주에 곰팡이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나도 그것은 썩는 것이 아니다. 곰팡이가 퍼야 그것이 나중에 간장, 고추장, 된장 같은 맛있는 발효식품이 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Leo Tolstoy)는 인간은 반드시 세 가지 생활 경험을 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 군대생활, 감옥생활이라 하였다. 그것은 이 세 가지 생활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과 배우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는 군에 갔다 와야 비로소 남자가 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20대 초반의 청년이 군대에 갔을 때 이들을 신앙으로 인도하

여 세례를 받게 하고 기독교 신자로 출발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고 그가 이를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와 민족, 나아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하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도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면 그의 부대 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사고가 줄고, 부대 분위기가 명랑해지고, 말은 바 책임에 충실한 모범적인 군인이 될 것이다.

1년에 20만 명의 수세자들이 제대를 하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데 일반 교회가 이들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한국 교회의 성장, 기독교 인구의 증가, 각종 사회악과 불의가 점점 그 세력을 잃을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인구의 감소로 사회에도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노인 인구의 증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sup>55)</sup> 이런 추세라면 한국 교회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 청년들이 교회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이들의 전도 또한 극난(極難)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에서는 매년 20만 명 가까운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단 성령이 그 영혼을 움직여 세례받으려는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이다. 강압적으로 세례를 주던 시대는 지났다. 자발적이 아니면 세례를 주기도 어렵다. 어렵게 세례를 받은 장병들이 사회로 나간 후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은 물론 세례를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않은 본인의 책임임은 말할 것 없다. 그러나 일차적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해도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책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군과 교회는 일치하여 이 문제를 숙고하고 연계 방안에 착념해야 하겠다.

55) 2007년 3월 2일 KBS 뉴스에 따르면 금년에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01개교, 단 한 명밖에 안 되는 학교가 15개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하여 군에서 세례를 받은 군인들이 제대 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반 교회가 소명의식을 갖고 이 일에 임해야 하겠다. 우선 이런 소중한 사역에 대해 일반 목회자들이 충분히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하겠다. 군목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이런 좋은 일을 일반 교회가 수습하지 못하여 잃는다면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비극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군선교의 활성화, 그리고 군에서 배출한 신자들의 확보에 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기도하며 협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11개의 군종 목사 파송 교단과 군선교연합회 그리고 모든 군종 목사들이 연합하여 실천하고 있는 “비전2020실천운동”은 분명히 21세기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임에 분명하고, 이 집단세례운동은 과거 기독교 역사에 자주 있었던 일로, 현재 한국 군에서 실시되는 진중 세례운동은 세계적 선교 방법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렇게 좋은, 그리고 풍부한 어장에서 계속 세례를 줌으로써 기독교 신자를 만드는 일은 다시없는 선교의 절호의 기회이며, 이는 비켜갈 수 없는 필요 불가결의 선교 방법이다.

주님은 지금도 명령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8-29).

※ 본 글은 2007년 4월 12일 “제7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발제 논문입니다.

##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



강웅산 교수



### I. 들어가는 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차제에 부흥에 관한 고찰을 해 본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특별히 그때와 같은 부흥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길 염원하는 마음이 큰 만큼 부흥에 대한 방법론적 관심이 고조되는 것 같다.

#### ■ 강웅산 교수

- 웨스트민스터 신학교(M.Div.)
- 웨스트민스터 신학교(Th.M.)
- 웨스트민스터 신학교(Ph.D.)
- 총신대학교 교수(조직신학)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18세기 미동북부 지역에서 있었던 대각성운동의 대변인격인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관심을 기울여 본다. 일련의 부흥 사건들이 후대에 대각성운동이란 이름으로 남기까지는 에드워즈의 공헌이 컸다. 자세한 부흥의 기록과 변론의 글들을 통해 조나단 에드워즈는 명실공히 대각성운동의 신학자란 이름을 얻게 되었고, 후대의 우리는 약 3세기 전의 부흥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을 얻었다.

에드워즈를 통해서 특별히 이 논문이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부흥을 정립하는 일 이상으로, 부흥을 위해 뛰었던 대표적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방법론에 대해서 말하는 바는 없나 하는 점이다. 찰스 피니의 부흥이론과는 대조적으로 칼빈주의 부흥신학을 견지했던 에드워즈에게서 부흥의 방법론을 찾는 것은 이율배반인가?<sup>1)</sup> 아니라면 에드워즈의 칼빈주의 부흥 이론은 방법론에 대해 어떤 가능성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칼빈주의 신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부흥의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이 논문은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방법론에 대한 토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방법론의 추구가 계속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본 논문은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우선 방법론적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시도 자체는 정당한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에드워즈는 어떤 근거로 기도와 설교를 방법론으로 제시하는지, 그리고 그런 방법론적 제안은 그의 칼빈주의 신학과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과 그에 따라 부흥에 대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1) 강웅산, “조나단 에드워즈의 칼빈주의 부흥 이해”, 〈조직신학연구〉, 제8호 (2006, 가을 겨울호): pp. 72-102.

## II. 방법론적 접근의 가능성

칼빈주의 부흥 이론을 견지하는 에드워즈에게서 나타나는 한 중요한 특징은 부흥을 위해 실제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1741년 한창 대각성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성령의 사역의 특징(The Distinguishing Marks)」 설교를 통해 에드워즈는 “부흥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교한 바 있다.<sup>2)</sup> 부흥에 대한 그의 입장은 생의 마지막까지도 결코 바뀌지 않은 듯하다. 자신의 생이 불과 2년도 남지 않았던 1756년 그는 스타브리지에서 아모스 8장 11절을 설교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자”고 호소하였다.

에드워즈 부흥 신학의 특징은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임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의 부흥 이론은 칼빈주의에 일관하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첫째, 방편은 원인(cause)이 아니며, 둘째, 그러므로 수단이나 방편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할 것이며, 셋째, 부흥이란 영적인 성질의 것이니만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방편들만이 부흥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드워즈의 부흥 이론에는 하나님의 주권사상과 함께 방법론적 가능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부흥이란 사람의 힘으로 창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는 “적절한 방편의 사용”의 중요성과 함

께 “고도의 주의와 경계”를 강조한다.<sup>3)</sup> 그 적절한 방법으로 에드워즈는 누가복음 16장 31절 설교에서 설교를 들고 있다. “성령의 경고가 죄인들을 깨우고 회심케 하는 데 최상의 방책”이며, “하나님 말씀의 경고는 죄인들을 일깨우며 회개케 하는 목적을 위해, 죽었던 자가 살아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합하다.”<sup>4)</sup> 에드워즈가 방법론적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방편이야말로 죄인을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케 하는 방편으로 최상의 것일 수밖에 없다.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가 고안해 낼 수 있는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다.”<sup>5)</sup>

에드워즈가 볼 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방편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 “감화를 일으키는 성향이 매우 많은 그런 방편은 추구되어야 한다.” 즉 “설교나 성례, 기도나 찬송을 통한 예배 등은 그것에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을 크게 감화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간절히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6)</sup> 그러면서도 동시에 에드워즈는 방편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의를 빠뜨리지 않는다. “이런 방편들이 대체로 감화를 유발하는 성질이 있지만 그것이 은혜의 감화 또는 은혜로 이어지는 감화가 아닐 수도 있다.”<sup>7)</sup> 부흥의 방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심리적 조작이나 기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달린 것임을 에드워즈의 부흥 이론은 말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에드워즈의 부흥 신학은 칼빈주의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에드워즈의 이와 같은 강조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실용주의적 성향에

2) Jonathan Edwards, “The Distinguishing Marks of a Work of the Spirit of God” in *The Great Awakening*, ed. C. C. Goen, *Works of Jonathan Edwards*(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4:270. 이하 에드워즈 인용은 Yale 전집을 우선으로 하겠음. 명기 방법은 Yale 전집의 경우 volume:page 만을, Banner of Truth Trust의 전집에서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Banner라고 명기하고 volume 번호와 페이지를 명기토록 할 것임.

3) 4:384.

4) Works(Banner), 2:68.

5) Works(Banner), 2:71.

6) 2:121.

7) 2:122.

대한 효과적인 답이 된다. 이미 밝혔듯이 부흥을 논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질문은 “어떻게?”이다. 즉 자칫 하나님보다 방법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에드워즈 당시에도 이미 그런 성향은 얼마든지 있었다. 소위 반쪽 언약(Half-Way Covenant)이 한 예였다.<sup>8)</sup>

에드워즈의 외조부 솔로몬 스토다드는 성찬을 소위 “회심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아직 회심하지는 못했지만 건덕상에 문제가 없는 자로, 원한다면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성찬의 근본 취지(언약)보다는 효과(전도의 수단)를 더 중시 여겼던 실용주의적 발상이었다. 에드워즈는 성찬 자격에 관한 논문(An Humble Inquiry)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 계속해서 “신의 섭리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기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너무 많다.”<sup>9)</sup> 즉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말이다. 이것은 에드워즈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모순을 예견하는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하겠다. 즉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거슬러 자신들의 피와 지혜”를 내세우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다.<sup>10)</sup>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실용주의는 성경을 떠나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계산과 계획을 더 앞세우는 교만의 소치였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방편

을 더 앞세운 결과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적 성향에 대한 에드워즈의 경고는 사실상 외면되었고 얼마 안 가 찰스 피니의 실용주의가 현대 부흥을 지배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피니는 고안된 방법을 잘 사용하면 목적인 부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계적 부흥 이론을 수립하여 대중화하였다. 그러나 스토다드나 피니와는 다르게 에드워즈에게는 오직 성경만 그의 실천신학과 부흥신학의 원리였으며, 그 점은 그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에 얼마나 의존하는가를 통해 잘 볼 수 있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실용주의적 방법에 의해 부흥이 만들어지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그의 역사관과도 연관이 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면서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sup>11)</sup> 또한 「겸허한 시도, 또는 기도함주회(Humble Attempt)」에서도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단번에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반박한다. “그것은 이 위대한 사건이 점진적인 진행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많은 증거에 위배된다.”<sup>12)</sup> 그는 또한 「구속의 역사(Work of Redemption)」에서, “그러나 이 일은 방편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을 설교함으로써, 은혜의 보편적 방편을 사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성취될 것이다.”<sup>13)</sup> 즉 방법론적으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에 반하여 에드워즈는 부흥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단지 에드워즈는 부흥이 있기까지 성경적인 방편들이 사용되어야 함을 인정할 뿐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러나 부흥이 방

8) 뉴잉글랜드 청교도 사회는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유아세례를 받았으나 성인이 되어도 아직 회심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정교인으로 입교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 그들의 아기에 대해 유아세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청교도 사회의 존립 문제일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감지한 그들은 유아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회심하지 못한 부모들의 아기에 대해, 즉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는 언약의 모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기들에 대해 세례를 베풀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것을 반쪽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청교도 사회에서 이미 언약백성의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실용주의적 타협이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다. 이런 실용주의적 대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에드워즈의 외조부 솔로몬 스토다드에게서 회심을 목적으로 수찬자격을 완화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져 나가게 된다.

9) Works(Banner), 1:477.

10) Ibid.

11) 9:458.

12) 5:410.

13) 9:459.



편들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견지하고 있다.

에드워즈의 부흥 이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 강조하면서 동시에 방법론적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대표적인 부흥의 글 「부흥에 관한 고찰(Some Thoughts)」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그의 저서들 중 부흥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세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에드워즈는 이 글을 쓰면서 그의 관심이 결코 방법론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지 그의 의도는 부흥을 분석하여 부흥을 촉구하는 목적이었고 더 나아가 부흥을 반대하는 쪽과 지나치게 광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모두 자제케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쉽게 말해 “어떻게”라는 방법론적인 관심을 갖고 이 책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에드워즈는 이 논문에서 적극적인 방편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3부에서 그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취해져야 할 방법들”을 열거하고 있다.<sup>14)</sup> 그러나 이 열거조차도 그가 말하는 방법론의 전부는 아니다. 이 책의 2부에도 일부가 언급되고 있고, 다른 저서들 「성령의 사역의 특징」이나 「겸허한 시도」에서도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1756년에 했던 아모스 8장 11절 설교에서도 대략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도,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 시도록 하나님을 자극하지 않는 삶,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해 본분을 다하는 것, 교회의 순결,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등이다.(1756, pp. 39-48).

정리해 보면 에드워즈는 방법론적 가능성과 중요성은 강조하지만, 자신도 어떤 특정한 방법론을 제시하며 부흥을 유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 방편들에 대한 강조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부흥에 대한 일차적 원인은 하나님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14) 4:385.

은혜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해 주신 방편들을 부흥을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심을 견지하고 있다.

### III. 기도

에드워즈의 경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기도를 들 수 있다. 아마 이 점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될 만큼 에드워즈의 삶은 기도로 특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숲속에 기도처소를 만들어 놓고 동네 꼬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였으며, 그것 말고도 혼자서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처소를 찾았었다. 기도의 삶은 그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다.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숲이나 들을 찾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가졌으며, 기도를 통해 그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탁월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깨닫곤 하였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크게 부흥되기를 기도했고, 이왕이면 자신의 때에 자신을 통해 크게 이루어지길 기도하기도 하였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 역량에 있어서 기도만큼 하나님의 일을 증대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도래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확신에서이다.<sup>15)</sup> 앞서 말한 것처럼 아모스 8장 11절 설교에서도 부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가장 먼저 꼽았었다. 기도는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책임의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기도는 인간의 의무인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표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에드워즈는 기도를

15) 4:518.

정의하면서 의존을 핵심적 요소로 꼽았다. “하나님께 대해 기도는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함을 가슴 깊이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sup>16)</sup>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그의 충속함과 자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다.”<sup>17)</sup>

## A. 기도의 동기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의무라는 그의 확신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극하고 유도하여 이 자비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는……말씀으로 가득하다.”<sup>18)</sup> 「부흥에 관한 고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당신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들이 성취되게 하는 한 위대하고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 뭔가 위대한 일을 하실 때면, 당신의 백성들의 놀라운 기도가 선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sup>19)</sup>라고 하며 에드워즈는 에스겔 36장 37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하였다.

부흥을 위해 기도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로 부흥 사건 그 자체의 성격과 효과를 들 수 있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부흥은 성령을 통해 놀라운 신적인 것들이 쏟아 부어지는 사건이다. 그 사건의 놀라움과 효과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특별히 이 신령한 것들 중에서도 에드워즈는 성령의 부으심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겸허한 시도」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가장 중요한 선물로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야말로 모든 영적 축복의 총합

이기 때문이다”<sup>20)</sup>고 하였다. 이어서 “성령만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없다”<sup>21)</sup>고 하였다.

이 점은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이해하는 역사 의식과도 함께한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격려할 뿐 아니라 교회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성취되어야 할 그 일들을 위해 그 영광된 성령의 부으심이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으로 드러나 있다.”<sup>22)</sup> 에스겔 36장 37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기 전에 그것을 바라는 특별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sup>23)</sup>라고 한 에드워즈는 또한 주기도문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동기를 찾았다. “주기도문의 이 첫 세 가지 간구는 사실상 이 영광된 날이 도래하기를 바라는 기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에 대하여 에드워즈는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그것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찾아야 하며, 그들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하며, 모든 다른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 영광에 종속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고 했다.<sup>24)</sup>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으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부흥을 위한 기도란 바로 부흥을 기도의 최대의 성취로 추구한다는 것이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방편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크게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결과를 생각할 때 기도가 방편이 된다는

16) 2:116.

17) 2:117.

18) 5:347.

19) 4:516.

20) 5:347.

21) 5:348.

22) Ibid.

23) Ibid.

24) 5:349-50.

것은 더욱 그러했다. 시편 65편 2절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자비를 부어 주시기 전에 기도가 선행되도록 즐거움으로 정하셨다”<sup>25)</sup>고 하였다. 즉 에드워즈에게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잘 부합하는 일이었다. 또한 부흥을 위한 기도를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당신의 말씀 가운데 많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성경은 그런 예로 가득하다.”<sup>26)</sup> 그러므로 약속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며……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된다”고 호소하였다.<sup>27)</sup>

## B. 기도에 대한 방법론적 분석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기도 강조를 특별히 부흥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에드워즈는 시편 65편 2절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진지하고 신뢰하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기도에 있어서 진지함(sincerity)을 강조한 바 있다.<sup>28)</sup> 진지한 기도란 무엇인지 에드워즈는 그 의미를 몇 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은 단순히 말보다 마음을 관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에드워즈는 진지하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한다.<sup>29)</sup> 그러므로 부흥을 위한 기도가 진지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는, 반드시 부흥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이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sup>30)</sup> 둘째로, 진지한 기도란 믿음의 기도이다.<sup>31)</sup> 에드워즈는 강조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즉 기도는 믿음의 소리인 것이다.”<sup>32)</sup> 셋째, 기도는 겸손하고 복종의 자세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통해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세로 아뢰야”함을 에드워즈는 강조했다.<sup>33)</sup>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때와 방법을 당신의 지혜로 정하시기” 때문이다.<sup>34)</sup> 넷째로, 에드워즈는 끈질긴 기도를 말한다. 즉 굽히거나 물러나지 않는 기도이다. 「겸허한 시도」에서 이사야 62장 6~7절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 굽히지 않고 간구하는 모습을 지적한다.<sup>35)</sup> 같은 논문에서 에드워즈는 꾸준히 굽힘 없이 소위 ‘기도합주회’라고도 불리는 연합기도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에드워즈는 시편 27편 14절, 하박국 2장 3절, 미가 7장 7절, 이사야 25장 8~9절 등을 인용하여 기도에 있어서 기다림의 의미를 말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영광된 약속을 성취할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sup>36)</sup> 다섯째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기도이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의 의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25) Works(Banner), 2:116.

26) Works(Banner), 2:114.

27) 5:351.

28) Works(Banner), 2:117.

29) Ibid.

30) 4:517.

31) Works(Banner), 2:117.

32) Works(Banner), 1:641.

33) Works(Banner), 2:117.

34) Ibid.

35) 5:348.

36) 5:436.

주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런 중보자가 있어 길을 예비하시어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상달되도록 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위대하심을 영화롭게 하신다.”<sup>37)</sup> 마지막으로, 간절함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금식기도에 대한 강조이다. 에드워즈는 금식기도는 주님이 모범을 보여 주신 기도라고 하며, “모든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면 자주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sup>38)</sup>

에드워즈의 기도신학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다.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복종하겠다는 순종이기도 하다. 그가 신앙의 본질로 중요시 여기는 감화(affection)와 연결지어 볼 때, 기도는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그가 부흥을 염원하는 만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도였다.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부흥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다.

### C. 연합기도

부흥과 관련하여 에드워즈의 기도신학에 독특한 면은 연합기도를 강조하는 점이다. 물론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에드워즈의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들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즉 여기에서 특별한 기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에드워즈가 고안해 낸 새로운 방법은 결코 아니다.<sup>39)</sup> 에드워즈가 연합기도를 특별히 강조한 것 역시 같은 기도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즉 하나님은 즐거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합심하

37) 2:116.  
38) 4:515.

여 간절히 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소위 “연합기도(united prayer)”를 말하는 것은 에드워즈가 기도합주회라고도 불리는 「겸허한 시도」에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에드워즈는 「겸허한 시도」에서 왜 연합기도가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다. 첫째, “연합이란 인간 사회와 관련하여 가장 선호할 만한 것 중에 하나이다.”<sup>40)</sup> 더 나아가 “연합이란……그리스도의 교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다.”<sup>41)</sup>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그런 연합은 가시적이어야 한다; 즉 식구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특별히 정한 기도의 날에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에드워즈는 다니엘이 세 친구와 연합하여 기도한 예, 에스더가 온 유대인들과 연합하여 기도한 예를 들며,<sup>42)</sup>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치를 이루는 일을 매우 바라시며 크게 기뻐하시는데, 결국 성도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교통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로 설명한다.<sup>43)</sup> 특별히 명령의 부으심을 갈망하는 연합기도가 더 중요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은, 에드워즈는 주장하기를 연합기도는 사람들을 각성케 하는 성향이 많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더 주의를 기울여 관심을 갖도록 하며, 부흥을 위해 더욱 노력케 하며, 하나님을 기꺼이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는 성향이 많다는 것이다.<sup>44)</sup>

에드워즈에게서 네 가지의 구체적인 연합기도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첫째로, 기도 무리들이 많은 필요에 대한 강조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집에서나 예배당에서 공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뭉치는 것을

39) 5:428.  
40) 5:364.  
41) 5:365.  
42) 5:366-367.  
43) 5:367.  
44) 5:366.

말한다. 에드워즈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청년들끼리, 처녀들끼리, 그리고 어린아이들끼리, 따로따로 모여 기도의 무리를 이루도록 권면하였다. 그런 모임을 꺼리는 자들에게 에드워즈는 이런 형태의 기도는 “공적으로 하루 온종일 모이는 것보다도 더 영혼을 움직이며 간절히 매달리게 하기에 유익하다”고 설득하였다.<sup>45)</sup>

둘째로, 에드워즈는 목사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지역의 목사들이 부흥을 위한 기도와 금식을 위해 자주 모이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이때 모여서 주로 대화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신앙의 간증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을 말했다.<sup>46)</sup>

셋째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흥에 관한 고찰」에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된다면 특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모습이 더 부각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되며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더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sup>47)</sup> 특히 셋째 효과와 관련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크게 도전을 받게 되면, 그들은 더 큰 은총과 자비를 바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합하여 같은 목적으로 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는 과급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충하였다(4:520).

넷째로, 에드워즈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들과 연대하는 기도운동을 지지하였다. 이 기도운동은 에드워즈가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1745년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스코틀랜드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 주심을 위해 연합하여 기도합주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sup>48)</sup> 그는 그 편지에서 “내 힘이 닿는 한 부흥을 촉진하고 확산시키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sup>49)</sup> 그는 이 시점에 있어서 신앙의 일(부흥)을 위해 연합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데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스코틀랜드 목사들에게 이 기도합주회가 7년간 계속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sup>50)</sup> 에드워즈는 연합기도야말로 “성령의 강한 부으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와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고 피력하였다.<sup>51)</sup>

#### D. 기도에 대한 정리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기도와 성령의 부으심은 뗄 수 없는 관계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성령의 부으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면서도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편을 제외하고 일하지 않으신다는 에드워즈의 신학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을 부흥을 기대케 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친다면, 하나님을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둔다는 의미이다. 부흥을 원하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중심이고, 부흥을 증대하는 방편에도 중심이고, 부흥의 결과와 효과에도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기도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용기이다. 왜냐하면 에드워즈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45) 4:519.

46) 4:507.

47) 4:520.

48) 5:444.

49) 5:446.

50) 5:327, 446.

51) 5:320.

만 의존한다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흥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대 사건임을 감안할 때 부흥을 위한 기도는 최고의 기도이며, 그리고 방법론적인 면에서 부흥을 위한 기도는 부흥을 촉진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 IV. 설교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을 무엇보다도 설교하는 목사로 알았으며 그것은 잔존하는 그의 설교의 양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그 모든 설교가 다 부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어느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도 설교자의 사명이 영혼을 깨우는 것임을 간파하고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에드워즈에게 설교는 부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눈은 복음의 설교자에게 가 있으시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러한 일(부흥)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귀케 하며 부흥을 격려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그런 일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그가 부름을 받고 헌신해야 할 사명인 것이다.”<sup>52)</sup> 에드워즈는 설교가 부흥을 가져 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매우 중요한 방편이라고 확신했다. 영혼을 일깨우는 부흥이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한 진솔한 설교를 통해 나타나는 놀랄 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sup>53)</sup> 이사야 62장 4~5절의 설교에서도 “신실한 목사의 노력(설교)은 하나님이 자녀들의 회심(또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방편이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sup>54)</sup>

54) Works(Banner), 2:23.  
52) 4:374.  
53) 2:254.

「부흥에 관한 고찰」에서는 설교를 자주하는 것이 부흥에 유익하다고도 하였다. 때로는 목사들이 연합하여 설교 합주회처럼 연이어 설교를 하며 서로의 설교를 지지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권장하고 있다.<sup>55)</sup> 그러나 에드워즈는 설교의 효과가 단순히 잦은 횟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는 것임을 빠뜨리지 않았다. 1731년 “인간의 의존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란 설교에서 “복음의 목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고 그들의 효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그들의 성공 여부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축복과 간섭에 달려 있다”<sup>56)</sup>고 했다.

#### A. 부흥 설교에 대한 이론적 분석

설교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의 질문은 설교자가 설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부흥에 관한 고찰」에서 에드워즈는 설교자의 목표를 “죄인들을 일깨우고 회심케 하며……성도들을 세우고 권면하는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sup>57)</sup> 「신앙의 감화(Religious Affections)」에서도 설교란 “신앙의 중요한 것들과 자신들의 불행과 치료책의 필요성, 제시된 치료책의 영광됨과 충족함을 통해 죄인들을 감화시키며,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심령을 깨워 신앙의 위대한 일들을 상기시키며 이미 아는 것일지라도 바른 인식을 돕고 충분한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58)</sup> 에드워즈에게 부흥설교라고 해서 일반적인 설교와 그 목표가 다른

55) 4:397-398.

56) Works(Banner), 2:4.

57) 4:374.

58) 2:115.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것은 기도의 특성도 그랬듯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추구하는 그 열의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강조는 부흥을 추구하는 것과 불가분적 관계이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부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달려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다.

에드워즈의 설교 이론은 그의 인간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설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낳는 것이다. 이 초자연적 변화는 참신앙의 좌소인 심령 깊은 곳(affection)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 이론은 그의 인간론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의 인간론은 「신앙의 감화」에 잘 나타나 있다.<sup>59)</sup>

에드워즈가 자신의 인간론적 구도에서 볼 때 설교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전달된다. 설교의 내용, 즉 복음이 이해(understanding)되어야 하는 부분과 이해를 통해 접수된 내용이 마음을 움직이는, 즉 감화(affections) [또는 성향(habitus)이라고도 불리는데]의 부분이다.<sup>60)</sup> 이 두 기관은 구분되면서 동시에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에드워즈의 인식론적 구도에 의하면 어떤 생각(idea)은 이해라는 기관을 통해 접수(sense)되어 인상(impression)으로 인식 속에 수록된다.<sup>61)</sup> 이해와 감화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접수되고 수록된 인상은 감화의 영역까지 미쳐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성향(inclination)을 움직이게 되고, 이 성향의 변화에 따라 의지(will)가 움직이게 된다.

여기에서 에드워즈가 기여하는 바는 인간을 총체적인 통일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와 감화와 의지의 표현이 모두 어우러져 나타났다는 뜻이다. 에드워즈가 볼 때 머리로 이해는 하였지만 삶 속에 의지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중간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의지로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감화가 빠졌기 때문에 의지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설교가들이 의지의 연약함을 지적하며 강력한 의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에드워즈가 볼 때, 사람은 결코 의지의 나약함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의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움직이는 마음 바탕, 즉 성향(inclination)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의지는 그 성향의 지배를 받아 자연적으로 그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의지의 동작이 된다. 그리고 성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감화(affection)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인식론 구조이다. 즉 이해를 통해 접수(sense)된 것이 감화를 일으키기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에 의해 영적이며 신적인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new sense, 또는 new ability)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데(sense)서 시작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느끼게 되기(new sense)까지의 변화가 있을 때, 이 복음이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이해(understanding)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화(affection)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감화가 일어날 때 의지(will)는 따라오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런 에드워즈의 인간론적 이해와 인식론에 근거해서 설교의 역할이

59) Samuel T. Logan은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설교자의 역할이 성경과 인간을 잘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며 에드워즈의 「신앙의 감화」가 이런 면에서 성경과 인간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통해 설교자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The Phenomenology of Preaching" in *The Preacher and Preaching: Reviving the Art in the Twentieth Century*, ed. Samuel T. Logan, Jr (Phillipsburg, NJ: P & R, 1986), p. 154.

60) 이해(understanding)과 감화(affection)에 대해서 필자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칼빈주의 부흥 이해"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조직신학 논문, 참조할 것.

61) 20세기 중반 이후 페리 밀러(Perry Miller)에 의해 에드워즈의 인식론적 구도는 존 로크의 경험론(empiricism)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에드워즈가 로크를 뛰어넘어 독자적인 인식론 체계(즉 성령의 영적 일과 사람이 속한 자연질서를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는)를 형성하였다는 것은 에드워즈 학계의 통일된 결론이다.



설명된다. “설교를 통해 얻게 되는 주된 유익은 그때 마음에 만들어지는 인상(impression)에 의해서지, 들은 것을 나중에 기억함으로써 오는 효과에 있지 않다. 비록 설교에서 들었던 것을 기억함으로써 종종 매우 유익한 경우들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 기억은 설교를 들었을 당시 말씀이 그 가슴에 형성한 인상에서 오는 것이며, 그 인상을 상기시키고 고조시킬 때 그 기억도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sup>62)</sup> 여기에서 “인상(impression)”이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적이며 영적인 것에 관한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감각(new sense)”이라고도 불린다. 에드워즈에게서 “새로운”이란 의미는 성령에 의한 결과물이란 뜻이다. 즉 이전에는 감지, 감각하지 못했던 영적이며 신적인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에서 에드워즈의 인간론은 인간의 기능과 성령의 역할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

에드워즈의 설교 이론은 보다시피 그의 인간론과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머리에 쌓아 둘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들의 가슴이 움직여져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절실히 필요하다”<sup>63)</sup>고 했다. 즉 설교의 방법론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강조하기를 그런 신적이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향해 당신의 말씀을 특별하고 살아 있는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sup>64)</sup> 그러므로 “감화를 일으키는 성향이 강한 그런 수단은 갈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sup>65)</sup> 그런 이유에서 에드워즈는 자신의 설교자로서의 사명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청중들을 감화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감화를 일으키는 설교를 할 것을 중용하고 있다. 에드워즈에게 있

62) 4:397.

63) 4:388.

64) 2:115.

65) 2:121.

어서 설교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매우 효과적인 방편이었다.

에드워즈의 설교가 특별히 효과적이었던 데는 그의 인간론에 근거하여 감화를 강조한 것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남장로교 신학자 로버트 탭네(Robert L. Dabney)는 “지적인 청중을 고도로 논리적이면서도 심오한 느낌을 주며 감화시키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설득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가 그런 설교였다”<sup>66)</sup>고 말했다. 에드워즈 설교의 또 다른 주요 요소는 지성의 부분이다. 에드워즈는 설교가 가슴을 감화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먼저 바르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감화의 부분과 이해의 부분이 불가분의 것임을 강조하였다.<sup>67)</sup> 그는 말하기를 “모든 감화는 이해의 빛을 통해서 일어난다”<sup>68)</sup>고 했고, 그래서 「신앙의 감화」에서 진정한 신앙의 감화로써 네 번째 특징으로 “은혜의 감화는 신적인 것을 바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마음이 조명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69)</sup> “거룩한 감화는 빛은 없이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이 전보다 훨씬 신적인 것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전에 감화가 없었을 때보다도 신적인 것들에 대해 훨씬 명확하고 잘 보며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뜨거움과 냉철함의 조화를 말하고 있다.<sup>70)</sup>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분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감화가 있기 위해서는 이해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의 사명은 감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강론하여 청중들이 잘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통해 신앙의 고리들을

66) Robert L. Dabney, *Sacred Rhetoric or a Course of Lectures on Preaching*(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9, reprint), p. 643.

67) 2:120.

68) 4:386.

69) 2:266.

70) Ibid.

명확하고 분명하게 잘 설명하고 어려운 것들을 잘 풀어 설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up>71)</sup>고 했다. 그런 이유에서 말씀사역의 중요성이 인식된다.

에드워즈는 1749년 목사 안수 설교에서 “그리스도는 목사의 모범”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다. 그 설교에서 그는 “목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행하게 하시고 말하도록 명하신 것만을 따랐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sup>72)</sup> 즉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목사가 자기의 설교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오직 성경이 강조된다. 그는 말하기를 목사가 오직 계시만 의지하고 말할 때, “목사의 일은……특히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기능과 많이 유사한 데가 있다. 다른 점은 목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밑에서 그로부터 배운대로 그로부터 오는 빛과 능력으로 그의 말씀을 사수하며,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sup>73)</sup>고 했다. 에드워즈의 계시의존 사상, 즉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리에 대한 강조 사상은 누가복음 16장 31절 설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말하는 것보다 (성경) 이 죄인들을 각성케 하고 회개케 하는 일에 훨씬 더 적합하다.”<sup>74)</sup> 계속해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을 각성케 하고 회심케 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며 말씀 자체 전달의 사명이 중요함을 각인시키고 있다.<sup>75)</sup>

바로 이러한 에드워즈의 설교 이론이 그의 부흥 설교에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의 목회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흥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1734~1735년 노스햄턴과 인근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 이 일어났을 때, 그 시작이 바로 그의 “이신칭의” 설교에 있었다. 이 설교

의 내용을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교리와 비교해 볼 때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sup>76)</sup> 즉 부흥은 새로운 내용이나 이론을 만들어 내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대로 전파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음을 먼저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그것이 청중에게 전달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에서 에드워즈의 이해(understanding)와 감화(affection)의 이론이 그의 설교 이론에까지 작용하는 것이다.

## B. 설교의 형태 및 딜리버리(Delivery)

게시의 충실한 전달을 위한 에드워즈의 노력은 그의 설교 형태에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윌슨 김낙(Wilson Kimnach)이 지적하는 대로 에드워즈는 청교도의 전형적인 설교 형태를 따르고 있다.<sup>77)</sup> 본문, 교리, 적용, 이 세 요소는 그의 대부분의 설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다. 에드워즈는 “본문(text)”에서 성경본문에 대한 설명을 한다. 물론 크게 발전한 성경신학에 익숙한 우리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지만, 구속사적 정황에 맞추어 설명하며 어떻게 주제가 되는 교리가 도출되어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다. 에드워즈는 “교리(doctrine)” 부분에서 그 교리에서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필요에 따라 성경을 인용하며 예리한 논리로 설명해 나간다. 인상적인 것은 가상의 반대이론들을 제시해 놓고 그에 따른 반박을 해 나가는 논리의 치밀함은 거의 에드워즈만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적용(application, 또는 improvement)”에서 에드워즈는 교인들이 입증된 교리를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

71) 4:386.

72) Works(Banner), 2:961.

73) Works(Banner), 2:963.

74) Works(Banner), 2:68.

75) Ibid.

76) Alister McGrath,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From 1500 to the Present Day*(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 119-120; 출처,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Jonathan Edwards’ Doctrine of Justification in Light of Union with Christ,” (Ph.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3).

77) Wilson Kimnach, “Editor’s Introduction”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0, *Sermons and Discourses, 1720-172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 33.

하며 살 수 있는지 설명한다. 이 부분에서 특히 에드워즈의 목회자적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때 에드워즈는 교리를 적용하면서 그의 실천적 제안이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권면하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에드워즈의 설교 형태는 이해를 통해 청중의 감화를 일으키려는 그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는 언제나 본문 말씀에 설교의 권위를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진리를 잘 전달하는 것을 일차적 작업으로 삼고 있다. 진리의 내용은 이해라는 과정을 거쳐 접수되어 청중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마음을 움직이는 감화에서부터 유발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에드워즈의 설교가 부흥의 결과를 낳은 것은 우연한 일치는 아니었다. 에드워즈 전기를 저술한 윈슬로(Winslow)에 따르면, “휘트필드가 설교하였을 때, 사람들은 위대한 휘트필드를 이야기하며 집에 돌아갔다. 앤필드에서 에드워즈가 설교하였을 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며 울며 돌아갔다. 설교가 단지 설교로서가 아니라 선포된 진리만이 남겨진 자국(impression)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78)</sup>

에드워즈의 설교 스타일, 즉 딜리버리는 해리 스타우트(Harry Stout)의 말처럼 분명히 휘트필드의 “극장식” 설교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나름대로 청중을 휘어잡을 줄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적 기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에드워즈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연상시키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지혜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달려 있다”<sup>79)</sup>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에드워즈 자신도 설교자가 이왕이면 감화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방법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내 생각에 큰 감동적인 설교 스타일이 ……평이하거나 밋밋하거나 무관심하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참된 신앙을 이해케 하는 데 유익하다……만약 주제 자체가 상당한 감화력이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매우 강렬한 감화력을 갖고 전하는 것이 그 주제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이다.”<sup>80)</sup> 「성령의 사역의 특징」에서도 “분명히 설교 전달에 있어서 매우 진지하고 감동 있는 전달은 그 주제의 특성과 중요성을 보더라도 아름다운 것이다.”<sup>81)</sup> 그리고 에드워즈는 큰 소리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음, 특히 신앙의 성숙한 단계를 설명하거나 마지막 날들에 대해 설교할 때 특별히 크고 진지한 소리로 설교해야 한다”<sup>82)</sup>고 하였다.

에드워즈의 설교 스타일에 대해 그는 청중이 부담스러워 청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설교 원고만 바라보고 읽었다는 등의 정설이 아닌 신화(myth)들이 있다. 그러나 에드워즈의 제자로서 한동안 에드워즈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며 수학했던 사무엘 홉킨스(Samuel Hopkins)의 전기에 따르면 “그가 쓰는 단어들은 풍부한 의미로 가득했으며 쉬우면서도 충격적인 빛을 발해, 그 만큼 청중을 사로잡을 만한 설교자들이 흔치 않았다…… 그는 몸동작을 별로 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자신의 마음의 동요를 관찰하는 듯 그의 설교는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화시키곤 하였다”<sup>83)</sup>고 했다. 이안 머레이(Iain Murray)의 전기도 에드워즈는 결코 설교 원고에 매여 설교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sup>84)</sup> 에드워즈 설교 연구의 대가인 윌슨 김낙도 에드워즈가 연륜이 들어 가면

78) Ola E. Winslow, *Jonathan Edwards, 1703-1758: A Biography*(New York: Macmillan Co., 1940), p. 135.

79) Works(Banner), 2:254.

80) 4:386-387.

81) 4:248.

82) 4:389.

83) Works(1817; reprint 1968), 1:50.

84) Iain Murray, *Jonathan Edwards: A New Biography*(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7), pp. 188-191.

서 그의 설교 원고는 아웃라인 형식이 많아졌으며 후반기에는 거의 아웃라인만으로 설교하였다고 알리고 있다.<sup>85)</sup> 직접 눈으로 목격한 홉킨스도 에드워즈가 강단에 설교노트를 갖고 올라가긴 하지만, 설교 원고에 매이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 때로는 즉흥적으로 생각을 더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더 강한 감정으로 전달되었고 청중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 전하고 있다.<sup>86)</sup>

### C. 회심 설교

에드워즈에게서 죄인의 회심은 부흥과 관련하여 볼 때 설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그런 점에서 에드워즈의 회심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그의 부흥 설교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놀라운 회심 이야기 (Faithful Narrative)」에 나타난 특성을 사무엘 로간(Samuel Logan)이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첫째, 자신의 자연 상태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도록 일깨움; 둘째,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은혜에 대한 완전한 의존과 중보자의 전적인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고취시킴; 셋째, 자력으로는 개선의 노력이 헛됨을 확인; 넷째, 자신들의 엄청난 죄와 행위의 악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정죄가 공의롭다는 확신을 가짐; 다섯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느끼기 시작; 여섯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게 됨; 일곱째, 그리스도와 더불어 즐거워 함; 여덟째, 구원의 확신을 가짐 등이다.<sup>87)</sup> 처음 다섯 단계는 소위 청교도들이 흔히 말했던 준비단계로 “법적 굴복(legal humiliation)”에 해당되고, 다음 세 단계는 “복음적 굴복(evangelical humiliation)”에 해당된다고 분류할 수 있다. 에드워즈는 법적 굴

복은 “자연적 원리, 특히 양심을 돕는 성령의 일반적 영향”에 의한 것이고, 복음적 굴복은 “초자연적 신적 원리를 심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일반은총과 특별(구원)은총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자는 “자연의 원리를 도와 그 자질과 능력을 최대화하여 신앙의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고 후자는 “신적인 것들의 도덕적 성질에 대한 초월적 미의 체험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전자를 통해 죄인들은 죄의 참악상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나, 아직 구원은총의 결과인 죄를 미워하는 단계는 아니다.<sup>88)</sup> 에드워즈가 볼 때 이 분류에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준비단계라고 해서 전적으로 인간 혼자서 다 성취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은혜가 개입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모든 단계에 걸쳐 성령이 개입하시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굴복은 일반은총의 범위에서 성령이 자연적 원리/능력을 도우시고, 복음적 굴복은 자연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효과를 성령이 이루신다는 것이기에, 회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에드워즈의 입장이다.<sup>89)</sup>

에드워즈의 부흥 설교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일반은총과 구원은총의 구분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관여하시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어디까지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범위인지 알아 그에 맞는 방법론적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 신인협력의 의미가 결코 아닌 것이, 에드워즈가 말하는 방법론적 모색은 하나님이 주신 방편의 활용을 최대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가 기여하는 역할이 생기는 것이다. 에드워즈가 볼 때 설교는

88) 2:311.

89) 에드워즈는 여러 편의 논문에서 성령의 일반은총적 사역과 구원은총적 사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신앙의 감화」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Th.M. 논문에서 에드워즈의 일반은총과 구원은총과의 구분/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Kevin Woongsan Kang, “Jonathan Edward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Common Grace and Saving Grace” (Th.M. thesi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6).

85) Kimnach, “Editor’s Introduction”, pp. 100-129.

86) Works(1817; reprint 1968), 1:50.

87) Logan, pp. 69-72.

복음 제시를 통해 이해(understanding)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감화(afections)를 낳을 때 목적인 바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성경을 통해 교리를 도출해 내고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이해가 가슴 깊은 곳에서 감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그의 설교 구성 형식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D. 설교에 대한 정리

에드워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의 설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부흥에 대한 그의 방법론적 이해에 있어서도 설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에드워즈가 부흥에 대해 방법론적 제안을 하는 것은 그의 신학과 밀접한 관계에서 도출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인간론, 인식론, 회심론과 그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높은 성경관이 그의 설교 이론과 어우러져 하나의 방법론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발하게 제시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은, 에드워즈가 볼 때 결코 의외적인 것일 수 없는 것이다. 에드워즈가 어떻게 설교에 접근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부흥의 가능성(적어도 방법론적인 면에서)을 훨씬 긍정적으로 희망할 수 있는 것이다.

#### V. 나가는 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차제에 다시 부흥이 재연되기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각성운동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부흥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에드워즈의 부흥 이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신학

에 기초하면서도 방법론적 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는 방법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기도와 설교로 국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칼빈주의 신학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써 부흥을 위해 기도와 설교를 강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하겠다. 그러나 에드워즈에게서 기도와 설교를 통해 원할 때마다 부흥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일차적 원인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편의 활용을 이차적 원인으로 하는 구도이다. 에드워즈는 늘 부흥을 사모했고 그의 목회는 언제나 다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염원하는 목회였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영혼들을 일깨우는 설교자의 사명을 다 했고,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을 장려함으로써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했다.

에드워즈의 부흥 기록과 신학을 통해 얻는 지혜는 비록 아무리 부흥을 염원한다고 하여도 부흥이란 것이 매일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체로 부흥은 교회가 암흑기나 영적 침체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깨우시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에드워즈 당시의 대각성운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100년 전 평양 대부흥운동 사건도 영적으로 죽었던 한국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차제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흥이 재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념의 행사 자체가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게 주신 큰 축복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 역사에 기념할 만한 부흥의 사건이 있었음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되, 계속해서 에드워즈가 제시하는 방법(기도와 설교)으로 꾸준히 부흥을 사모하는 것만이 구원의 일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 자세라고 믿어진다.

※ 본 글은 2007년 4월 12일 “제7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발제 논문입니다.

##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논찬



이규철 군종목사



‘19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맞는 한국 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기원하면서 전 교계의 간절한 소망을 결집시키고 있는 차제에 18세기 미국 교회 대각성운동의 열적 심지를 당긴 에드워즈 부흥운동의 성격을 살피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런 면에서 본 논문의 논자이신 강운찬 교수님의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 ■ 이규철 목사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M. Div., Th. M.)
- 피츠버그 대학교 수학
- 계명대학교 대학원(Ph. D.)
- 극동방송 설교가, 육군 3사관학교 총성대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고찰’이라는 논문은 기독교 부흥운동의 본질적 패러다임의 기초를 해명할 뿐만 아니라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검토된 교회 부흥의 고전적 방법론의 소중성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는 계기를 부여한다. 이에 강운찬 교수님의 연구 열정과 학문적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논자께서는 에드워즈의 신학적 토양인 칼빈 신학의 스펙트럼에 견주어 에드워즈가 역설한 교회 부흥의 방법론을 검토하고 시험했다. 그 결과, 논자께서는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이 하나님의 주권성에 철저하게 기초함을 규명했다. 그리고 에드워즈가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과 방편으로써 기도와 설교를 적극적으로 지목하고 활용했음을 밝혔다.

먼저 논자에 따르면, 에드워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의 삶의 방식이자 습관으로 강화된 자였다. 특히 에드워즈는 주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기도하되 ‘그가 생존하는 시기에 그리고 그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 드렸다. 이는 그의 심비에 새겨진 영적 경험의 진실한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논자에 따르면,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가슴 깊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 대한 의존과 그분의 충족한 자비에 대한 한결같은 신뢰이다. 따라서 에드워즈는 기도의 성서적 근거를 세밀하게 살핀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현존하는 교회들을 향해 주님의 영광된 성령의 부으심이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기도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며, 동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그의 기도의 목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최대의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기도는 교회 부흥의 주요 방법론이다.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실행시키는 성령의 부으심을 가능케 하는 핵심 인자이다. 그러므로 에드워즈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이

자 부흥을 촉진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다음으로 에드워즈는 교회 부흥의 방법론으로써 설교를 지목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도록 정하신 매우 중요한 방법이 설교라고 에드워즈가 확신했기 때문이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그는 복음에 대한 진솔한 설교를 통해 나타나는 놀랄 만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영혼을 일깨우는 부흥을 이루기 위해 굉장한 정열로 헌신했다.

특히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통해 초자연적이고 영적 변화를 낳는 설교에 대해 깊은 신학적 성찰과 인간학적 통찰을 도모했다. 그는 부흥을 일으키는 설교는 복음이 '이해' 되어져야 하는 부분과, 이해를 통해 접수된 내용이 마음을 움직이는 '감화' 내지 '성향'의 상호 순환적 영향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에드워즈는 '법적 굴복'을 유발시켜 '복음적 굴복'에 이르게 하는 회심 유발 메시지에 치중했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부흥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실존적 요청을 느끼도록 하는 차원의 변화'를 이루도록 설교를 해야 한다. 에드워즈가 이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부흥을 유발하는 설교가 복음에 대해 단순히 지적 순응만을 이루는 차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화'를 일으켜 자연인의 의지(will)까지 그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인간론과 인식론적 이해를 동반한 설교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에드워즈의 분석적 통찰은 '영성이 동반된 설교를 하라'는 현대 설교학의 핵심 키워드를 제공한다. 그리고 부흥을 이루는 설교에 대한 에드워즈의 탁월한 이론은 그의 시대만이 아니라 작금의 동시대 크리스천이 갖는 '숙변 같은 고민', 곧 머리에 쌓아 둔 채 가슴이 뛰지 않고 움직임을 상실한, 영적으로 화석화된 현대 교회와 교인을 향한 엄중하면서도 치열한 반성을 요구하는 강력한 도전임에 틀림없다. 한마디로 에드워

즈에게 있어서 설교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름하여 동시대에 함께 거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열망하고 있는 것처럼, 에드워즈 또한 교회의 부흥을 늘 사모했고 그의 목회 사역이 언제나 부흥의 불길로써 활활 타오르기를 염원하였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을 장려하면서 잠든 영혼들을 일깨우는 설교자의 사명을 다하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부흥을 향한 에드워즈의 그 열정과 숨결은 시공을 초월하여 주님의 일의 부흥을 열망하는 후배 된 우리의 여전히 신선한 도전과 충격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더불어서 부흥에 대한 에드워즈의 신학과 실례(實例)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부흥시키시도록 기도할 것과 설교를 감당할 것을 촉구하고 계심을 일깨우고 자각케 하여 교회 사역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감의 재발견이 참으로 소중한 명료하게 촉구한다.

한마디로 논자께서 규명한 에드워즈의 부흥 이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한 방법론적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곧 교회 부흥의 일차적 원인은 하나님의 은총의 주권적 개입이다. 그리고 이에 응하는 주의 사역자들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구체화에 접속케 하여 회심을 일으키는 기도와 설교라는 방법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부흥에 관한 에드워즈의 고견은 하나님의 사업의 부흥을 회구하는 사역자들이 가장 힘을 써야 하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專務)하라"(행 6:4)는 '원 사도'들의 선언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임을 재인식케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흥에 대한 에드워즈의 논점은 부흥을 목표로 하는 그 어떤 방법론보다도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적합성을 가진 것임과 동시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임을 해명하고 규명한다. 이런 점에서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고찰'이라는 논문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에 이르도록 하는 귀한 단초를 제공하신 강운



찬 교수님의 연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굳이 밝히라면 논자께서 설정한 연구의 범주 설정에 대한 것이다. 앞서 논자께서 피력하신 바, 에드워즈의 신학적 배경은 칼빈주의 신학을 토대로 함에 틀림없다. 이에 논자께서는 칼빈 신학에 기초한 에드워즈의 부흥 사상에 대한 검증의 잣대로써 칼빈주의라는 스펙트럼을 굳건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비추어 관통시켰다. 그런데 본 논문이 발표되는 주(主) 장(場)이 초교파적 연합과 사랑의 마음의 화합을 이루어 함께 일로 매진해 나가는 군선교 현장에 선 동역자와 동시대의 군인 교회임을 감안할 때, 논자께서 살피신 논의의 폭이 조금 좁은 감이 없지 않는가 하는 기우(杞憂)로써 사족(蛇足)의 변을 삼는다.

##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윤병국 군종목사



### 1. 들어가는 말

군선교를 위한 비전2020 실천운동은 군선교의 모토이며, 군선교에 몸담고 있는 이들을 움직이는 정신적 동력이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개발된 전략 중 심혈을 기울인 전략이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여길 만큼 유일무이한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쟁의 와중에서 종교적 안위

#### ■ 윤병국 군종목사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Equiv. B. D.)
-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Th. M.)
- 총신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Th. D.)
- 수방사사령부 충성교회 담임목사

도 없이 전쟁터로 나서야 하는 젊은이들을 돕겠다고 시작한 군선교가 대내외를 포함해서 이제는 한국 교회의 선교적 주류로 자리매김한 데는 지난 55년간의 군선교 역사의 축적된 힘과 비전2020 실천운동의 구호 아래 한국 교회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노력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특성상 교단적 이해와 교리의 상이함 때문에 연합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국 교회가 군선교라는 기치 아래 일치를 추구하며 함께하는 모습은 군선교에 매진한 결과로 주어진 선물이라 할 것이다.

전군신자화운동으로 한국 교회의 관심을 군선교에 갖도록 만들었던 그때의 환희를 상기하며, 한국 교회는 다시 제2의 전군신자화운동의 기치를 들었다. 이것이 소위 집단세례운동으로 일컬어지는 비전2020 실천운동이다. 1996년 2월에 시작된 이래로 이 운동은 목표 연도의 1/3 시점을 지나고 있다. 매년 20만 명의 세례 소식에 사도행전적인 역사라며, 이런 일이 한국 군선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자타가 놀라워하며 한껏 고무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비전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군선교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전력투구하고 있다. 저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대위임령을 군대 안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사역에 임하고 있다.

선교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받들어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사항이다.<sup>1)</sup>

그런데 지금 군선교의 현장은 요동치고 있다. 내외적인 요인들은 군선교를 위기로 진단한다. 우선 비전2020 실천운동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난관에 부딪혔다. 이미 지난 10년간의 통계가 그것을 예측하게 한다. 대외적으로 작년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인구조사 중 종교별 통계가 기독교

계에 충격을 주었다. 지난 10년간 기독교 신자수의 감소와 천주교 신자수의 엄청난 증가는 비전2020 실천운동을 무색게 할 정도로 충격을 주었다.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통계치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군선교 현장만의 위기로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기독교(개신교) 전체가 위기의식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교회 안과 밖의 정황(contexts)은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교회주의, 낡은 패러다임의 고수, 일인중심 세계, 획일적인 목회, 사회 흐름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 등이 하나의 교회와 사회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sup>2)</sup>

차제에 우리는 비전2020 실천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차분히 군선교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군선교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선교 전략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군선교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이점에 있어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군종목사들은 군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급변하는 21세기의 군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본인의 연구가 새로운 군선교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군 환경은 변화의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미래 군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군 인력 및 부대 수에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는 군선교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군선교를 선교로 이해하는 선교학적 접근을 통해 미래의 변화에 군선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연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이슈일 뿐 아니라, 기독교 군선교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갱신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

1) J. Herbert Kane,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6), p.139.

2) 김두현, 「Church Solution」(경기 성남 : 21C 목회 연구소, 2006), p. 27.

3)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New york : Orbis Books, 1991), p.186.

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기존 패러다임은 새로운 패러다임에게 자리를 내주지만, 폐기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오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sup>3)</sup> 그런 의미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은 선교 전략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 선교학적 반성과 새로운 군선교의 패러다임을 위해 지평을 열어 준다는 점에 있어서 평가할 만하다 하겠다.

## II. 군 구조 개편

국제적으로 탈 냉전 이후, 동·서 진영 간 대결구도의 종식에 따라 국가들은 안보와 군사 중심의 고위정치(High politics)보다 경제 중심의 하위정치(Low politics)로 국제관계 방식을 바꾸면서<sup>4)</sup> 세계는 세계화 및 개방화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들이 국경을 넘어 정치·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국내 체제의 민주화로 전쟁의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sup>5)</sup> 이러한 안보·환경적인 변화는 냉전체제의 산물인 우리 국방체제에도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군 구조 개편이 시행될 경우에 이것이 군선교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 1. 상황 인식

2005년 9월에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은 미래 한국군을 선진

4) 이선진, "1990년대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대응", 『세계화 시대와 다자안보』(서울: 지식산업사, 2002), p. 288.

5) 이승철, "21세기 국제 및 한반도 주변정세",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경가: 나남출판, 2004), pp. 33-34.

형 과학군대로 바꾸어 놓겠다는 혁신안이다. 국방개혁 2020은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 거기에는 문민 통제 체제 발전, 국력에 맞는 군사력 건설, 통합전력 극대화 보장,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등과 같은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sup>6)</sup>

이 개혁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존재한다. 한쪽에서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현재의 남북관계와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우리 군은 창군 이래 69만 명이라는 병력 위주의 대군체제를 이루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 볼 때에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7)</sup>

#### 1) 안보환경의 변화

21세기는 이전의 미·중·소를 중심으로 한 이념적 냉전적 양자안보 환경체제에서 지역안보를 위한 다자안보 환경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앞으로 지금의 국제관계를 “단일·다극체제”로 묘사하면서 향후 이러한 체제로 10-20년 지속하다가 “다극체제”로 굳어질 것으로 보았다.<sup>8)</sup> 동구권의 몰락 이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북아 협력대화(NEACD),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이사회(CSCAP) 등은 안보에 있어서 다자안보협력을 주요 안보정책으로 선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sup>9)</sup> 다수의 국가들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오늘날 협력안보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6) 김강녕, “국방개혁 2020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군사저널〉(2006년 9월), p. 55.

7) 차두현, “국방개혁의 비전과 과제”, 군종병과 창설 55주년 기념세미나 강연, p.2.

8) Samuel P. Huntington,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Vol. 78, No. 2 (March/April 1999), p. 37.

9) 한동만, 「다자안보의 이론과 실제」(서울: 서문당, 2003), p.137.

10) 이민룡, 「한국안보 정책론」(서울: 진영사 1996), p. 278.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군사적인 것뿐 아니라 경제·환경·자원·기술 등 비군사적 차원까지 지평을 넓히고 있고, 양자간 외교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자협력을 통해 해결되어 가고 있다.<sup>10)</sup>

안보 문제를 다자간의 협력이 아닌 단독으로 책임질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지불되어야 할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고립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북한이 처한 현실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구도는 아직도 유동적인 한반도 상황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 여부,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냉전적 요소가 혼합된 다원적인 구도가 될 것이다.<sup>11)</sup>

## 2) 남북관계의 변화

남북관계는 지금까지처럼 경색된 단절상태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남북은 평화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가고 있다.<sup>12)</sup> 우여곡절은 겪겠지만, 남북관계는 갈등 조정국면을 거쳐 상호 유무상통하는 화해 체제로 갈 것이다. 향후 25년을 전망해 보건대 우선 체제 경쟁에서 이긴 한국의 발전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경제력에 있어서 GNP는 2조억 달러, 1인당 GNP는 약 4만 달러, 세계 7위의 종합경쟁력, 정보화 지수는 세계 5위의 선진국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증대되면서 경제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경제적 수단을 통해 타국에 힘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sup>13)</sup>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북한은 군사력으로는 무력에 의한 남침이 무모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11) 여운기 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의 안보정책」(서울: 서문당, 2003), p. 68.  
12) 박종철, 「미국과 남북한, 갈등과 협력의 삼각관계」(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2), p. 172.  
13) Lloyd Jenson, 「외교정책의 이해」, 김기정 옮김(서울: 평민사, 1964), p. 262.

## 3) 국방환경의 변화

미국은 군사혁신(RMA)과 국방 전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통해 국방개혁을 시도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유럽 국가인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도 군사개혁을 통해 두드러질 정도로 그 성과를 이루어 놓았다. 그들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군개혁을 지원했고, 경량화·기동화된 군대로 개편하였으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군은 북한의 재래식 군 구조와 비례해서 대군 위주의 저기능·노동집약형 군 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에 의한 미군전력의 지원이 없다면 안보상황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2004년에 군사·기술적 차원에서 자주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국방부가 작성한 정책서에는 2020년까지 1, 2단계로 나누어 15년 동안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첨단화, 정밀화, 고속화된 미래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서 선진형 군대를 갖출 것을 밝히고 있다.<sup>14)</sup> 2020년을 목표로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군 구조와 전력체계 구축,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계로의 전환,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표 1〉 선진 외국 육군과의 신분별 구성비 비교(KIDA 연구보고서 2003)<sup>15)</sup>

국가		합계	장군	장교	부사관	병
미국	인원	484,128	302	64,880	188,908	230,038
	%	100	0,07	13,4	39,0	47,5
독일	인원	240,960	121	19,751	96,368	124,720
	%	100	0,05	8,2	40,0	51,8

14) 강한구,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전략방향”,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경기: 나남출판, 2004), p. 424.  
15) KIDA에서 산출한 장교 진출률 및 정원 산정. 시행방안 연구보고서(2003)

국가		합계	장군	장교	부사관	병
영국	인원	113,950	243	11,920	33,270	68,517
	%	100	0,22	10,5	29,2	60,1
이태리	인원	137,000	267	13,533	25,299	97,901
	%	100	2,06	9,9	18,5	71,5
프랑스	인원	150,000	184	16,515	50,547	82,754
	%	100	0,13	11,0	33,7	55,2
한국	인원	560,000	320	48,000	56,000	455,000
	%	100	0,06	8,6	10,0	81,4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의 인력 구조는 소위 선진형 군대와 비교할 때, 소위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형 군대로 병력 구조를 바꾸어 나간다면, 간부의 비중은 늘어나고 병의 비중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표 1〉에서 보면 미군은 군사혁신(RMA)과 국방 전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통해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병력 규모를 줄여 왔고, 특히 1990년대 초에는 군간부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10% 늘려 갔다.<sup>16)</sup> 럼스펠트(Donald H. Rumsfeld)는 미국이 국방 전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통해 얻어진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 확보로 21세기를 미국 주도의 세기로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sup>17)</sup>

〈표 1〉에서 보면, 유럽국가의 국방 인력에서는 병과 간부의 비율이 4:1 비율로 병은 줄이고 간부는 늘렸고, 미군 인력은 병과 간부의 비율을 3:1로 반비례해서 줄이고 늘렸다. 한국의 국방 인력 추진 방향도 전투 위주의 군 인력 운영이라는 기치 아래 군 구조 개편을 단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16) 조영진, “미래인력구조 발전 방향”, 『미래지향적 인력 설계 및 정책 방향』(서울: Kris, 2005), p. 56.

17) 홍규덕, “안보전략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의 전략적 연계”, 〈전략연구〉, 제12권 제3호, (서울: Kris, 2005), p. 7.

#### 4) 사회학적 환경의 변화

우리 사회는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은 인구의 증가율이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데,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심각한 정도의 저출산 사회로 내려앉으면서 성장 동력이 둔화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예를 들면, 총 인구 중 청장년 인구가 2000년 34.4%에서 2020년 25.3%로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병역자원의 인구가 16%에서 2020년에는 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노령화 지수는 30수준(2000년 기준)에서 76수준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이다.<sup>18)</sup>

〈표 2〉우리나라 연도별 출생률

구분	1995년	2000년	2002년	2004년
출생아수	72.1	63.7	49.5	47.6
1일 평균(명)	1,976	1,745	1,355	1,301
조출생률 (인구 1천 명당 명)	16.0	13.4	10.3	9.8
합계 출생률(명)	1.65	1.47	1.17	1.16

〈표 2〉에서 보면, 이런 감소 추세로 나간다면 2010년 후반 이후에는 산업동력의 약화뿐 아니라 군의 인력 확보 측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병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구조 변화 측면에서 보면, 장차 군에서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에는 불안정성과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출생률 감소로 인하여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전통적인 군 인력으로 간주되어 온 남성 병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군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데 시스템의

18) 정원영 외, “발전적인 예비전력 육성 및 관리방안”, 『미래지향적 인력 설계 및 정책 방향』(서울: Kris, 2005), p. 310.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sup>19)</sup> 이미 대선공약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인력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 온 징병 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sup>20)</sup>

## 2. 한국군의 인력 현황과 문제점 분석

우리 국방 인력은 현역 69만 명과 300만의 예비 병력, 그리고 민간인력(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 3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다음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

### 1) 노동집약적인 병력구조라는 점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비해서 우리도 대규모 부대를 편성해서 대병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효율과 기능 면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 병력 규모로는 세계 6위에 해당하지만 병력 1인당 투자되는 국방비는 세계 62위 수준에 머물 만큼 저기능의 병력체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sup>21)</sup> 그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우선 1990년대까지는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풍부한 인적 자원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출생률의 저하와 함께 인력 충원 여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미동맹에 의한 비대칭 무기 및 첨단 과학무기들의 의존으로 한국군은 북한군의 병력수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만 대병체제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sup>22)</sup>

2) 단기자원 및 의무복무 자원이 타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구성비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병 계급은 전체의 75%를 차지한 반면, 간부의 비율은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간부의 비율을 조사해 보면 약 50% 정도가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복무 인력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디지털화된 전장(digital battle field)을 주도적으로 기획 및 관리할 수 있는 ‘고지식·고기술·고능력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sup>23)</sup> 현재로는 고기능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 주고 있어서 전문 군 체제의 인력 구조로는 적절하지 않다.

### 3) 현역과 민간인력 간의 균형과 활용 체제가 매우 불균형적이다.

현재 양자간의 비율은 95:5인데, 국방업무의 대부분을 현역이 수행하는 불균형적 인력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현역이 예비역이 되었을 때 그들이 군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국가가 수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4) 직업 안정성 차원에서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직업군인제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영관장교인데, 그중에 소령이 차지하는 비율(장군: 0.7%, 대령: 3.4%, 중령: 9.4%, 소령: 15.5%)이 다른 계급보다 월등히 높다. 결국 대다수가 직업 전환이 곤란한 40대 중반에 소령으로 전역하게 됨으로써 직업성 보장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우수자들이 장기 복무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sup>24)</sup>

19) 조영진, “미래인력구조 발전 방향”, p. 12.

20) 조영진, pp. 12-13.

21) 조영진, “미래인력구조 발전 방향”, p. 14.

22) 조영진, p. 15.

23) 최광표 외, “미래전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미래지향적 인력 설계 및 정책 방향」(서울: Kris, 2005), p. 150.

24) 최병순, 「국방인력관리론」(서울: 국방대학교, 2002), p. 82.

### 3. 「국방개혁 2020(안)」의 주요 내용

앞에서 언급한 여러 환경의 변화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대군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국방개혁에 대한 동기유발과 대전환의 필요성을 갖게 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개혁안에는 군 구조, 국방정책 및 운영, 병영문화 등 크게 3개 부분으로 구분된다.

#### 1) 군 구조 분야

이것은 “병력은 감축하나 능력은 증대시킨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즉, 기술집약형 인력 구조로 개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성능 무기와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술 인력을 중시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sup>25)</sup>

자연히 병력 조정은 지휘 구조 및 병력을 담고 있는 부대 구조의 변화를 예고한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에 의해 유지되어 온 여러 요소들이 변화를 겪을 것이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체제로 나아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sup>26)</sup> 상비병력은 현재 68만 명에서 2020년에는 50만 명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감축 기간 중 간부의 비율은 현재 25%에서 40% 수준으로 크게 조정되고, 징집제 중심에서 모병제의 개념을 가미한 징모혼합제로 인력을 획득할 전망이다.<sup>27)</sup>

병력은 2020년까지 단계별로 감축하여, 육군의 경우 지금의 54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축소 조정될 것이다. 부대 구조도 역시 개편되어 군단급 부대의 해체 및 감편, 사령부급 부대의 통폐합을 통한 ‘지작사’ 창설로 첨단 정보·과학 기술군의 인력 구조를 설계하고, 고지식·고기능·고능력을

25) 조영진, “미래인력구조 발전 방향”, p. 20.

26) 차두현, “국방개혁의 비전과 과제”, p. 4.

27) 권태영, “21세기 한국적 군사혁신과 국방개혁 추진”, 〈전략연구〉, 제12권 제 3호(서울: Kris, 2005), p. 44.

갖춘 미래 군대로 재편되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미래전쟁을 대비하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맞춘 선진 정예 군대를 목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표 3〉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 (국방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구조 개편과 병력의 단계적 축소 및 정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병력은 현 (68.1만 명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li> <li>— 육군(54.1만 → 37.1만), 해군(6.8만 → 6.4만), 공군(6.5만 → 6.5만)</li> </ul> </li> <li>○ 국방 운영의 문민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공무원 정원 증대(현재 52% → 1998년 71%)</li> <li>— 군무원 직위 확대(현재 현역의 3.9% → 2020년 6%)</li> </ul> </li> <li>○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부: 병(현 25:75 → 2020년 40:60), 여군: 장교(현 2.7% → 2020년 7%),</li> <li>— 부사관(현 1.7% → 2020년 5%)</li> </ul> </li> <li>○ 징모혼합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병 모집 분야 대폭 확대</li> <li>— 2단계: 복무기간 조정, 유급원병제 도입 검토</li> <li>— 3단계: 모병제 시행검토(장기)</li> </ul> </li> </ul>

〈표 3〉에서는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대한 국방정책 관련 내용들인데, 대략 이런 구도로 우리의 국방 인력 구조가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해 준다.<sup>28)</sup>

#### 2) 국방정책 및 운영 분야

##### 가) 민간 인력 활용의 극대화

이것은 “국방 운영의 문민 기반 확대”를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 국방 운영에 있어서 ‘군 중심’의 틀을 깨고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시키

28) 조영진, “미래인력구조 발전 방향”, p. 129.

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업무를 이루는 두 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전투 기능을 담당하는 현역과 다른 하나는 군사력의 건설 및 유지와 같은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 인력이다. 앞으로 병력이 감축되고 국방업무가 복잡성을 띄게 되면, 민간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sup>29)</sup> 전투 분야는 현역이 담당하고, 지원 파트인 행정·기술·교육·연구 등 비전투 부문은 민간 인력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민간 인력의 기술적·관리적 역할이 증대되고, “군 직책의 민간화(Civilianization of military billets)” 추세가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다.<sup>30)</sup>

〈표 4〉 국방 민간 인력 활용 직위<sup>31)</sup>

구분	조직	가능 직위(분야)
국방행정 기관	국방본부 및 직할기관	기획·예산·국제협력·정훈·획득·연구개발·군수·인사·복지보건·시설·공보·정보화·조달 등
군 조직	합참, 각군 부대	기술정보·일반행정·문서행정·인사행정·교육행정·재무관리·정보통신·시설유지·법무행정·전문인력·정훈·군종·정비 등
군 교육/연구기관	군 교육기관, 산하 연구기관	교수·교관·파견 연구원

〈표 4〉의 도표는 민간 인력 활용 분야를 비교해서 보여 주는데, KDI에서는 군종을 민간 인력 분야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전시에 군종의 역할에

29) 조영진, p. 88.

30) 조영진, p. 89.

31) 김종탁 김원배 외, 「합리적인 군무원 정원/인사 관리 방안 연구」(서울: KIDA, 1998) 참조.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미군도 1990년 초에만 해도 군종장교들을 현역에서 민간인으로 아웃소싱하려다가 걸프 전과 이라크 전을 거치면서 전시 군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오히려 군종장교 수를 증원한 것을 볼 수 있다.

### 3) 병영 문화 분야

병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시간대로 전국에 전파되며, 국민들의 관심거리가 된다.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도 군에서 일어나면 크게 취급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질타를 당하기도 한다. 전근대적 병영 문화로 인해 시민사회의 신뢰가 더 이상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으로서는 병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sup>32)</sup> 바로 이러한 병영 내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사고들은 병영 문화 분야 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젊은이들이 군 생활을 인생의 유익한 시간으로 인식하도록 복무 환경을 개선해 보겠다는 기본 구상에 따라 병영생활/복무생활 개선, 복무제도 개선/사고예방 체계 정립, 장병의 자기계발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갖고 추진될 것이다.

병영 문화 개선은 군 간부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군 간부들의 의식개혁과 민과 연계된 실무위탁 교육을 병행해서 의식 전환을 꾀할 것이다. 장병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군 인권 보장기구를 설치해서 장병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토록 할 것이다. 그동안 폐쇄되어 왔던 병영 문화를 열린 병영으로 적극 바꾸어 가기 위해 내무생활을 ‘통제’에서 ‘자율’로 전환하여 일과시간 이후의 자유시간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사고예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입영단계에서부터 징병검사를 강화하고, 잠재적 사고요

32) 심경옥,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관건 및 추진 전략”, 〈전략연구〉, 제12권 제 3호(서울: Kris, 2005), p. 63.



인을 갖고 있는 장병들을 분별해서 정도에 따라 관리를 해주고, 현역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신설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sup>33)</sup>

### III.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군선교 사역의 변화

군 구조 개편은 필연적으로 군선교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력과 부대 수의 변화에 따라 군선교는 그에 따른 변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인력 구조에도 그에 따른 변화가 올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래에 속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또한 구체적인 정보 접근이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부정확하지만, 근사치를 구한 인력 구조를 제안할 수밖에 없다. 미래는 언제나 가변적이고, 새로운 환경요인에 의해 정책이 수정되거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연구를 진행시키기로 한다.

#### 1. 선교 대상 변화

육군의 경우 인력 구조는 2002년까지를 목표로 간부의 비율을 19%에서 35~45%로 상향 조정하고, 병의 비율은 81.4%에서 55%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 이후 간부의 비율은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60%로 상향 조정되고, 병은 현재의 81%에서 40~45%의 비율로 하향 조정되리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33) 차두현, “국방개혁의 비전과 과제”, p. 6.

34) 조영진, “미래 인력 구조 발전 방향”, p. 56.

지금까지 기독교의 군선교 대상은 간부보다는 젊은이들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전2020 실천운동본부가 1996년 설립되면서 선교의 목표를 둔 대상은 논산 훈련소나 신병교육대를 통해 배출되는 장병들이었다.

2020년까지 매년 22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전국민의 75%를 기독교 신자화시켜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선교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방개혁안을 통해 미래의 군 구조가 개편이 된다면, 장병들의 인력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선교대상이 일방적으로 병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수정할 이 유도 되는 것이다.

#### 1) 장교 및 부사관

간부의 비율은 현재의 19%에서 최대치 45%, 통일 이후에는 55~60%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는 병 위주의 선교 개념을 전략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5〉육군 간부 대 병의 구성비 변화 예상도

구분	현재	공존기(2020)	통일기(2020 이후)
장교	8.6 %	10 %	10 %
부사관	10.0 %	25~30 %	40~45 %
병	81.4 %	60~65 %	40~45 %

〈표 5〉를 근거해 보면 간부들은 현재의 10만 명 수준에서 약 17만 명 수준으로 인력 구조에 변화가 올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간부에 대한 선교는 병들에 비해 부차적이었고 전략적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더욱 고급화, 전문화된 인력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장교 및 부사관들에 대한 선교 전략과 방법론을 신중하게 고려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 2) 병사

지금까지 대군주의의 바탕이 되었던 병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가 생각하는 간부와 병의 비율을 지금의 25:75에서 2020년에는 40:60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다.<sup>35)</sup> 그렇다면 병은 지금의 81.4%에서 60%로 조정하는데, 대략 지금의 45만 명에서 22만 명 수준으로 하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2020년 목표로 단계별로 감축해 나간다고 보면, 5년 단위로 추정해서 숫자화시켜 볼 때,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6〉병의 인력 구조 단계별 인력 조정 추정안<sup>36)</sup>

연도	2006년	2010년	2015년	2018년	2020년
병사 숫자	45만 명	40만 명	34만 명	27만 명	22만 명

지금 비전2020 실천운동본부에서 세운 전략은 미래에도 군이 현재와 같은 인력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세워졌다. 국방개혁안과 미래의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선교 대상의 비율에 변화가 온다면, 선교 전략도 그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비전2020 실천운동본부는 세레 숫자의 감소에 따라 선교 전략의 변화로 제시한 것이 몇만 명 하향조정한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지난 10년간 세레운동에 의해 수치화된 통계를 미래의 군 인력 구조에 적용시켜 계산해 본다면 목표 성취는 난망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2. 부대 활동의 변화

35) 조영진, “미래인력구조 발전 방향”, p. 21.

36) 이 통계는 본연구자의 추정치이다. 실제 국방부가 연구하는 인력 내용과는 오차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둔다.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는 단계별로 군부대들이 감축/해체되거나 통합되어 부대 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부대 구조에 따른 군종장교 편제 운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해체되는 군부대에 편제된 군종장교를 통합되는 부대로 재조정하거나, 현재 비편제로 되어 있는 부대에 군종장교를 보직해 함으로써 군종장교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표 7〉미래 총병력 규모의 구상안<sup>37)</sup>

부대 수 및 병력 규모			현재	대치기	공존기	통일기
부대 장비	육군	군단	11	7	6	5
		기보사	4	4	4	4
		보병사	18	16	13	7
		향토사	13	4	—	—
		동원사	13	11(7)	11(4)	5(4)
		지역방위사	—	7	4	4
	해군/ 해병대	전투함	148	116	105	110
		해병사	2	2	2	1
	공군	전투기	536	543	452	402
병력 규모	총 규모		약 69만	약 60만	약 50만	약 35만
	전략군		—	0.05만	0.32만	0.6만
	육군		56만	47만	38만	22.2만
	해군/해병대		6.8만	6.8만	6.8만	6.0만
	공군		6.3만	6.3만	6.3만	5.4만

위의 도표에서 보는 대로, 부대 수는 현재보다 약 2/3 정도로 감축되고, 병력 규모도 지금의 1/2 수준으로 감축됨에 따라 군종장교뿐 아니라 현재 군종장교가 미보직되어 있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군지원 민간 성

37) 조영진, “미래 인력 구조 발전 방향”, p. 133.

직자들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군부대 수는 가까운 장래에 1·3군사의 통합과 올해부터 군단급 부대의 해체 및 감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 일하는 군종장교 및 군지원 민간 성직자의 사역지가 새롭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8〉 육군 민간 성직자 현황('06년 육군본부 군종실 종합)

부대명	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비고
		목사	기타	신부	기타	승려	기타	
1군	120	89	7	8	5	0	11	
2군	176	137	7	6	0	16	10	
3군	398	294	21	2	5	18	58	
육직	115	42	7	0	36	11	117	
총계	809	562	42	16	46	45	98	
		604(75%)		62(7%)		143(18%)		

〈표 8〉에서 보면 육군에서 파악한 민간 성직자의 종교별 비율은 기독교가 75%, 천주교가 7%, 불교가 18%를 차지하고 있다. 군별로 보면 수도권 및 경기도 지역의 민간인 사역자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민간 사역자의 경제적 요인 및 전담이나 아니면 수시지원이나 하는 사역의 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9〉육군 민간 성직자 현황('06년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종합)

구분	총계	전담	수시	불명
제출	210(31%)	173(51%)	36(27%)	1
미제출	474	168	98	208
총계	684	341	134	209

〈표 9〉에서 보면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서 파악한 민간 성직자의 숫자는 군에서 파악한 숫자보다 80명이나 증가된 숫자로 나타난다. 군

선교연합회와 육군에서 종합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민간 성직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서 좀더 정밀하게 파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통계를 분석해 보면, 전체 인원 중에 군이 요구하는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해서 합법적으로 사역하는 전담 성직자는 51%, 수시 성직자는 27%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는 31%라는 저조한 비율로, 그만큼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전개될 미래 군 구조 개편은 군선교 대상뿐 아니라, 군선교를 수행할 군종장교 및 민간 성직자에게도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은 틀림 없다. 해외 선교에서는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필요하다면 선교사들에 대한 전략적 재배치를 주저하지 않고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군 선교 현장에서도 전략적 선교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데 따른 대가는 지불되어야 한다. 즉, 재배치에 따른 민간 인력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해 누구는 남게 하고, 누구는 선교현장에서 철수시켜야 하는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 IV. 연구 설계

이 과정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절차와 연구 과정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즉 연구 질문과 연구 대상, 건본 추출, 연구 도구, 자료수집 절차와 제한사항 등이 아래에 설명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연구 도구로서 설문지를 준비할 것이다. 지면 관계상 전체를 다 실지 못하고, 상당 부분 생략할 수밖에 없는 점에 이해를 구한다.

## 1. 연구 질문 검토

본 연구는 미래 군 구조가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지금 군종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의 자기 이해가 어떠한지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사역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따른 변화에 군선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 질문 1. 군종목사는 군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연구 질문 2. 효과적인 군선교의 장애요인이 무엇인가?

연구 질문 3. 미래 군 구조 개편에 군선교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군종장교로 활동하고 있는 200여 명의 현역 군종목사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군 생활 2-3년차 초임 군목들로부터 20년 이상 장기간 군사역을 해온 군종목사들을 망라했으며, '06년 9월 29일 이메일로 설문을 보냈고 설문에 응해 준 인원은 64명이었다. 뒤늦게 서너 명이 설문을 보내왔지만 분석과 통계를 마친 후라 참조만 했지 계산에 넣지 못했다. 64명 중 위관급 군종장교는 40명으로 63%를 차지했고, 영관급 군종장교는 24명으로 38%의 비율을 나타냈다. 3:2로 적절한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 3. 견본 추출

일반목회나 특수목회를 거의 접해보지 못하고 바로 군대로 들어온 초

임군목들이 군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부와 그보다 군생활을 5년차 이상, 20년 이상 더 많이 한 군종목사들의 군선교에 대한 이해나 정체성 및 미래를 전망하는 견해를 비교하여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고, 나름대로 값진 결과를 얻었다고 확신한다. 설문지는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로 연구 대상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옛 방식대로 했더라면 기한 내에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신속한 설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연구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 4.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질문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13개의 질문 도구가 주어졌고, 선교의 장애요소를 묻는 질문에 13개, 미래 군선교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12개의 질문 도구를 준비했다. 객관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된 38개의 질문 도구들을 주요 연구 도구로 삼았다.

설문지에 대해서는 크론바하 알파테스트(Chronbach's  $\alpha$ )로 설문자들의 내적 일관성을 테스트할 수 있었다. 실시 결과 연구 질문 1, 2, 3에 대하여 각각 알파값은 0.957, 0.973, 0.976으로 나타나 설문지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자료 수집 절차

육·해·공군 전군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군종목사 200여 명에게 '06년 9월 29일과 10월 1일에 걸쳐서 설문지의 중요성을 인터넷 이메일로 설명하고, 설문지를 정성껏 작성해서 신속하게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응답자들은 설문지가 분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석연휴를 걸쳐 30%

의 인원들이 성실하게 설문에 응해 주었고, 연구를 진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 6. 연구 제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설문 요청을 했더라면 더 많은 군종목사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군에서 사역하고 있는 민간 신분의 성직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들을 포함시켰다면 좀더 연구가 입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또한 질문 도구들을 통해 수집된 38개의 자료들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들을 지면에 전부 실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는 필시 독자들의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V. 자료 분석

본 연구자는 현역 군종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획득된 자료 분석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 1. 〈연구 질문 1〉 군종목사는 군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연구 질문 1에서는 정체성을 묻는 설문으로 준비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군종목사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군선교 현장에 적절하게 부름받은 사역자이나 여부는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38)</sup> 사실 군종목사는 성직자와 군종장교라는 이중직을 갖는다는 육군 규정이나, 입대 전 그에 대한 것을 교육을 통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군대에 보내진 선교사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7명(9%)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군선교 현장을 문화가 다른 독특한 선교지가 아닌 단순한 목회지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군종목사들은 군선교에 있어서 자신이 적임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체성에 혼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로서의 자기 인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군 목회와 군종 업무 사이에 갈등이 있고, 이중직을 수행하는 데에도 애로를 겪고 있었다.<sup>39)</sup>

이것은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현장에 들어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로 군선교 현장을 접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군 입장에서는 군종목사가 당연히 목회자로서 종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도 군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갖추기를 희망한다. 장병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무형전력을 창출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런 면에서 지휘관과 군 조직이 필요로 하는 군종참모나 사고 예방이나 정신적인 면을 담당해 주는 전문 상담사로 위치를 공고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군종목사가 단순히 목회자로서뿐 아니라 이러한 특별한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이 되고자 함에 있어서

38) 자신을 목회자로 이해한 사람은 전체의 66%, 군종장교로 이해한 사람은 18%에 불과

39) 정체성의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61%를 차지. 정체성의 약화는 보통 사역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정체성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군종목사들이 일반 목회적 시각을 가지고 군대를 농촌이나 어촌처럼 단순하게 목회 사역지로 이해하고 있다. 군대에 들어와서 경험해 보니, 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군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시인했다. 훈련이나 교육 없이도 군종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왔기에 혼돈을 경험하게 되었다.

입대 전 군선교나 군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군사역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일에 도움을 받았을 것이며, 좀더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개인의 자질 면에서는 하나같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설교나 사역에서 높은 만족도와 보람을 가지고 일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sup>40)</sup> 그러나 그들이 보람을 느낀다는 사역의 열매는 목회적 측면에만 한정될 가능성이 많다. 계급에 의한 수직구조를 갖고 있는 군 문화에 대한 적응의 미숙으로 군 사역 전체를 원만하게 다루는 일까지 만족스러움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군종목사들이 어떤 일을 중심으로 사역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목회 중심이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1%를 차지했고, 야전 위주로 사역하고 있다는 사람이 25%로 나타났다.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비중을 두고 일한다는 응답이 8명(12%)이었다. 이것은 군종목사들이 균형잡힌 시각으로 사역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교회라는 시설이나 이미 믿는 신자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불신장병이나 야전 중심 사역은 아무래도 서툴고 어렵다고 느낀다. 그래서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다루는 일이 서툴고 쉽

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2. <연구 질문 2> 효과적인 군사역의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 2의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서 준비된 설문을 통해 획득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 1에서 확인한 것은 군종목사들이 처음 군대라는 환경을 접할 때 이곳이 단순한 일반목회 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거리상으로 같은 시간 공간 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군대는 일반사회와는 문화적으로 거리가 있는 독특한 문화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다양성과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일반사회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 요소가 군대문화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깨닫는다. 또한 군종목사들은 잦은 전출로 인해 사역에 긴장과 불안정성을 경험한다.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마다 옮겨 다니는 경험이 군종목사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잦은 전출로 인해서 야기되는 것은 직업 보장 차원에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과 함께 가정생활에 있어서 적지 않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군종목사와 지휘관과의 관계이다.

병영 안에서 지휘관의 위치는 사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 점에서 군종목사는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한다.<sup>41)</sup> 개인적으로 장병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해도, 지휘관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효과적인 군선교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40) 사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51명(80%)을 나타냄.

41) 지휘관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45%,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8%,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지 27%에 불과. 군종목사에 대한 지휘관들의 몰이해(42.6%)를 가장 힘든 요소로 보았음.

군종목사들이 지휘관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 요인 중 제일 많은 경우가 성직자에 대한 몰이해라고 답했다. 이것은 지휘관이 성직자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것을 가장 힘들어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게 되면 군종목사는 사역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되었다면 지휘관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이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군종목사는 이중직의 신분을 갖는다고 했다. 하나는 성직자요, 또 다른 하나는 군 조직의 일원인 군종장교라는 신분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다.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상호 보완하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을 원활히 하는 군종목사는 사역에 있어 탁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휘관 개인이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군종목사와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갈등국면을 군종목사가 촉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성직자이기를 바라지만 군인임을 거부하는 엉거주춤한 태도는 지휘관에게 성직자로서의 존경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군종목사가 군종장교라는 신분을 망각할 때 성직자의 위상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군종목사가 타종교 성직자들이나 동역자인 군종목사들과 갖는 갈등의 문제이다.

군종목사는 군대 내에서 좋은, 싫든 타종교 성직자와 자주 접촉을 갖게 된다. 서로 종파는 다르면서도 군에서 요구하는 군종장교의 기능이나 목적은 같기 때문에 군종참모와 보좌관으로서 업무를 함께 해야 할 때가 많다. 이 관계에서 서로간의 협조 여부로 인해 갈등을 겪는 일이 생긴다. 대부분이 갈등이 일어나는 주 원인으로 군종 업무를 들었다.<sup>42)</sup> 타종교 성직자들은 자기 종교 본연의 일을 군종 업무보다 우선시한다. 참모 업무를

42) 갈등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업무 수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 교리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단지 1.6%에 불과.

수행하는 군종목사는 업무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타종교 성직자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업무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이것이 종교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일반 지휘관들에게는 군종목사들이 타종교 성직자들과 상생이나 화합을 하지 못한다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개인의 성취나 진출 문제에 있어서 진급은 군인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동료와 상하 간에 이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sup>43)</sup> 이것은 군종목사로서 사역의 목적을 진급이나 개인 성취보다는 선교 그 자체에 두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계급구조 속에 있는 군종목사가 진급에 있어서 비선될 때의 아픔은 대단하다. 그러나 피라밋 구조의 계급사회에서 비선되는 대상이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어떤 계급에서든 그것은 군종목사의 아픈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진급에서 누락되는 것은 군 사역에서 퇴출, 장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측면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심 고민하는 이유이면서도 바깥으로 그것을 드러내 놓지 않는 태도일 수 있다.

다음으로 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신자들을 양육하는 문제이다.<sup>44)</sup> 군대 교회는 군종목사와 성도들이 갖은 전출을 경험하는 곳이다. 일반교회와는 다르게 이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신자들을 위해 장기적인 목회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종목사들이 신자 양육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밝혀졌다.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세례받은 인원들이 신자로 군인 교회에 정착되는 비율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분석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 년에 십수만 명이 세례를 받아 자대로 배치를 받지만, 저들이 신앙고백을 하고 신자로 뿌리를 내리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세례운동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 이후로 양육이나 제자훈련

43) 진급 문제에 대해서는 11%만이 갈등 요인이라고 응답.

44) 신자 양육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 그 다음 갖은 전출 27%로 나타남.

이란 말이 군선교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래서 이제는 양육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 군종목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sup>45)</sup>

연구질문 2에서는 군종목사들의 정체성 약화 내지는 혼란이 군선교의 장애 요소를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연구 질문 3>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군선교의 대처 방안이 무엇인가?

연구 질문 3은 본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목표를 갖고 추구해 온 질문이다. 설문 조사를 통해 군종목사들이 미래 군선교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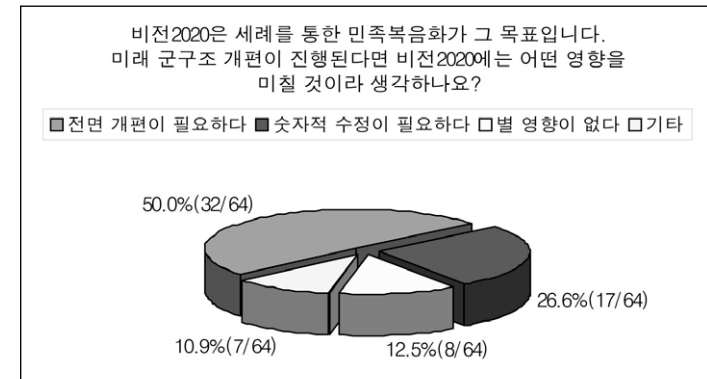
현재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우리 군종목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설문 결과 반수 이상이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대해 무지하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보았다. <sup>46)</sup> 이 사실은 지금 국방부나 육본 등 정책 부서에서 심도있게 거론되는 군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저 말단 야전부대에서 사역하는 군종목사들에게는 현실감 있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것이 훗날 우리의 군선교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공감하지 못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군선교 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군선교 패러다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시켜 주고 난 다음 군종목사들이 보인 반응은 현재 우리의 군선교 전반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는 내용을 내놓았다.

45)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 등 양육 프로그램을 갖고 사역하는 비율이 69%라고 응답.

46) 43% 정도가 군선교 사역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인식.

〈표 10〉 군 구조 개편에 따른 비전2020 실천운동의 변화 여부(설문 29)



전체 중에 50%가 근본적으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세례 숫자를 약간 하향조정하는 수준 정도로 변화를 가하면 된다는 사람이 27% 응답했다. 아무튼 부분적 수정에서부터 근본적 전략 변화를 포함해서 달라져야 한다고 본 사람이 전체 중 77%를 차지했다. 지금의 선교 전략을 고수해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지 13%로 소수에 그쳤다. 지금의 군선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교 전략은 신자 획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타종교의 포교 전략에도 영향을 미쳐 천주교와 불교는 기독교와 방불한 집단세례개념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감내하고라도 단순히 숫자를 하향조정하는 선에서 미래 군선교 상황을 극복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군선교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군종목사들이 근본적인 선교 전략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문에 응한 군종목사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사항들을 요구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선교 시스템의 구축

기독교계가 미래의 군선교를 위해 힘써 주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군선교 시스템 구축을 들었다.<sup>47)</sup> 군종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점이 기독교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힘이 분산되어 효과적인 사역을 놓친다는 점이다. 기독교는 군에 종군하는 교단이 12개 교단으로 가장 많고, 군선교에 대한 열정과 인적 물적 자원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군선교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타종교는 군에서 신자를 획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우리보다 한 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천주교나 불교는 군에서 사역하는 법사나 신부들이 포교(전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교 군종교구나 천주교 군종교구청을 설립해서 교단적으로 뒷받침하며, 현역인 군종법사단이나 군종신부단과 일원화된 체제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군대를 선교의 현장으로 이해하면서도, 양질의 군종목사나 민간지원 성직자들을 선발하고 훈련하여, 적절하게 파송하는 선교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 군종목사단이 있지만, 현역 군종목사들의 친목단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 전문기관을 표방하지만 전문선교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아직도 미비하다. 군종목사들이 소속하고 있는 교단들과 교회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히 후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설문에 응한 군종목사들은 효과적인 군선교를 위해 현역 군종목사단이 전향적인 군선교 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을 주문한다. 군종목사들의 요구사항은 선교적 안목으로 군선교를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2개 교단에서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는 군종목사들을 통합하는 선교 현장의 중심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내용들은 깊이 숙고할 만한 내용들이라

47) 군선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 군종실장의 장군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21%, 군종목사 확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로 나타났다.

판단된다.

물째, 군인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제자훈련을 통한 양육체계

군인교회도 양육체계를 갖고 돌보면 얼마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할 수 있다. 형태는 달리하지만 이미 제자훈련으로 군인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양산되는 군인교회들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군종목사들이 양육의 중요성을 점점 인식하게 되었다.

맥가브란(McGavran)은 집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인간운동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인간은 그들의 동류들과 밀착된 유대를 지니는데, 그 동류집단이 기독교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오는 것을 인간운동이라 할 수 있다.<sup>48)</sup> 군대에서 집단에게 복음을 전해 효과를 보는 이유는 인간운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인간운동의 성패는 저들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돌봄(Care)을 어떻게 받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sup>49)</sup>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구성원인 신자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선교 역동성을 갖춘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미 설문을 통해서 확인한 대로 양육의 중요성을 알고, 이것을 목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는 군종목사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자는 앞에서 기술한 세 가지 연구 질문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첫째, 군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군종목사들은 자질 면에서 탁월한 소명감과 능력을 갖춘 군 사역자들이라는 점이다.

48) 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 이해」, 전제욱 외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pp. 486-487

49) Donald A. McGavran, p. 526.

둘째, 군대를 선교의 장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목회지로 인식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했고 이것이 군사역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군대는 문화권이 다른 선교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군대는 문화권이 일반사회와는 다른 폐쇄된 수직사회로, 해외 선교지처럼 선교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학적으로 군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 목회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군종목사들이 야전 중심의 사역보다도 신자 중심 및 교회 시설 중심으로 사역하는 현상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군 문화를 장악함이 없이 단순히 집단적인 세례운동만을 가지고는 군대를 복음화할 수 없다.

넷째, 비전2020 실천운동은 일선에서 사역하는 군종목사들에게 선교학적 관점에서 문제 의식을 갖게 한다. 집단세례를 실시한 지 10년의 중간 결산을 통해 앞으로 15년 후를 예측해 볼 때, 이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대다수 군종목사들이 근본적인 선교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비전2020 실천운동을 주도하는 관계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그렇다고 군선교 현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제시된다. 집단세례를 통해 수십만이 통계에 잡히지만 진실한 신앙고백과 양육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천문학적 숫자가 허수로 처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군종목사들이 군인교회를 제자훈련을 통해 양육체계를 바꾸어 나가자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지금 전체 군종목사 중에 신자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율이 70%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군선교의 미래를 밝게 전망해 준다.

여섯째, 제자훈련을 통한 양육체계는 군인교회의 체질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신교대나 훈련소에 편중된 세례 중심의 군선교를 모든 부대, 모든 장병들을 진정한 복음 선교의 대상으로 회복시키는 선교 전략의

대안이 될 것이다.

군대 환경이 갖고 있는 선교의 여러 가지 장애 요소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실시하는 군인교회마다 그 결과에 크게 고무되어 있는 모습은 군선교의 전망을 밝게 해 준다.

일곱째, 군선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잘 준비된 군 사역자를 갖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군종목사들은 군에 들어오기 전, 군선교를 위한 체계적이고 정리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다. 군종목사보다도 2-3배나 많은 군지원 민간 성직자들도 군선교를 위해 들어오지만 군대를 선교의 현장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선교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러나 자질 면에서 뛰어난 군종목사들과 군 사역에 은사가 있는 검증된 민간 성직자들을 엄선해서 양육하고 파송시킨다면 군선교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여덟째, 군선교를 위한 선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군종목사들이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군 내부와 바깥 기독교계를 향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 군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선교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 요구가 실현 가능한 이유는 해외 선교를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들이 합리적인 선교 시스템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나 불교처럼 단일 종단이 아니고 11개 교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선교기구들을 가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쉽게 분리하고 갈라서는 속성 때문에 통합된 생각과 방향성을 갖고 선교하는 체제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종목사들은 초교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선교단체들이 순수한 복음 신조에 대한 일치된 고백과 헌신으로 인종과 교파를 초월해서 탁월한 선교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조국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아주 독특한 선교를 하고 있는 군선교가 그

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 Ⅵ. 제 안

비전2020 실천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토양이 복음을 수용하는 옥토가 되도록 토양을 새롭게 기정하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난 지 1세기가 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가 기독교에 빚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구한말로부터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는 민족의 수난사에 기독교는 외래 종교가 아닌 한민족과 아픔을 함께하는 종교로 고난을 함께했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의 심성은 복음에 대해 비옥한 토양이 마련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로부터 한국 기독교는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갖게 되었다. 1960년대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불의한 권력에 대해 침묵했고 경제 번영 체일주의에 편승해서 교회가 물질주의 세속주의에로 기울고, 교회가 교회다움의 교회로서의 신비감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민들 사이에서 반기독교적 정서를 형성하게 되었고, 신자수의 정체 내지는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의 의식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1907년도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의 현실을 위기의식으로 인식하여 바른 신학과 삶에 입각한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고,

기독교(개신교) 안의 제교단들이 일치를 추구하면서 한국의 초대교회가 가졌던 시대정신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교회 성장 동력에 다시금 불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긍정적인 문화 토양을 조성하고, 우리의 군선교 현장을 올바른 선교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군선교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선교 사역을 위한 통합적인 선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러한 군선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기관들이 세워져야 한다.

가. 군종목사나 민간 성직자를 군선교사로 선발해서 양육하고 파송하는 전문선교기관(Sending Body)을 두어야 한다.

합동측 교단 선교본부나 초교파적으로 운영하는 SIM, OMF, WEC 등과 같은 파송선교본부가 설립되어야 한다. 군에 군종목사를 파송하는 12개 교단과 민간 성직자를 파송하는 교단들은 각 교단이 군에 사역자들을 파송할 때 책임있는 파송기관에 의해 군선교 파송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초교파적으로 파송교단들을 통합하고 군선교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파송기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파송교단들이 합의하면 지금 후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파송선교본부로 개편될 수 있을 것이다. 어디가 되었든 그 기관들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교단들은 그 파송선교본부에 군선교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군 사역자들은 그 권위 아래서 군선교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군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나. 군 현장에서 군사역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지 선교기구(Receiving Body)를 구성해야 한다.

현지 선교기관으로 적절한 단체는 현재 친목단체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한국 군종목사단으로, 현지 선교기구로 개편하는 것이다. 한국 군종목

사단은 선교지인 군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역자들의 총회로서 효과적인 군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제와 정보를 제공하고, 군선교라는 절대적인 가치 아래 군종목사들의 역량을 하나로 뭉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내외의 선교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최상의 권위체로 나서야 한다. 군선교 현장을 위한 기관으로서는 적어도 최상위 의결기구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기 위해 매년 총회를 열어야 하며 재정을 공개하고 선교 정책과 시스템 및 방향을 공포해 주어야 한다. 장단기 계획과 전략을 제시하고 하부 지향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더 나아가 감찰 기능과 윤리위원회의 강력한 시행 및 진중교회가 따를 규정 수립, 군지원 민간 성직자 통제, 학술팀 운영을 통한 건강한 군진신학 수립, 그리고 모든 군종목사들을 계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사역자로서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해 주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 구조의 최고 확장 모델로서의 총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 군종목사들은 자신들을 후원하는 후원교회(Supporting Church)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군종목사들은 효과적인 군선교를 위해 자신들에게 영적, 물질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후원교회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종목사들은 개인적으로 능력 여하에 따라 부분적으로 후원교회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적으로 개인의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군 사역자들은 후원교회의 도움으로 군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선교기관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역동성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군선교의 성패는 이 선교기관들이 얼마만큼 상호 역동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서로 의사소통이나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기관들이 따로 움직인다면, 지리멸렬될 수밖에 없다. 이것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면 관계적 역동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교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불교가 불교군종교구로 체제를 개편하고, 천주교가 전교를 위해 군종교구청으로 승격되면서 시스템에 의한 군 전략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군포교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래서 군 사역자 개인이나 선교단체가 아무리 탁월해도 서로 관계가 단절되거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교의 역동성은 일어나지 않는다. 효과적인 선교사역은 상호관계가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군선교 현장을 진단해 볼 때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선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각각 공회전하고 있는 선교의 요소들을 거룩한 삼각관계 체제로 묶어서 선교적 역동성을 갖는 군선교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군 사역자를 중심으로 선교의 중추 조직인 이 세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사역의 성공을 위해 상호간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며 역동적 조화(Holy Triangle Tension Relationships)를 이루어 가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선교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증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상치료는 일시적인 치료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군선교의 근본적 해결책은 시스템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 군종목사들이 이해하는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군선교의 개선책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을 살피기에 앞서 선교 요소들이 역동적 관계로 상호간 결속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본 글은 2007년 4월 12일 “제7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발제 논문입니다.

## 참 고 도 서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New york : Orbis Books, 1991.

McGavran, Donald A. 「교회성장 이해」. 전재옥 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Kane, Herbert J.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6.

Jenson, Lioyd. 「외교정책의 이해」. 김기정 옮김. 서울: 평민사. 1964.

Huntington, Samuel P. “The Lonley Superpower”, foreign affairs, Vol. 78, No. 2 (March/April). 1999.

강승삼.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8.

\_\_\_\_\_. “세계 선교의 동향과 한국 교회의 선교적 과제”, 「세계군선교발전세미나」. 서울 : AMCF. 2002.

강한구. “자주 국방 구현을 위한 전략 방향”,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경기: 나남출판. 2004.

권태영. “21세기 한국적 군사혁신과 국방개혁 추진”, 「전략연구」. 제 12권 제 3호. 서울: Kris. 2005.

국방부 군종실. 「군종업무 지침」. 서울 : 국방부.

권현찬. “군선교의 현황과 그 전망”. 〈기독교 사상〉 2월호. 1971.

김강녕. “국방개혁 2020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군사저널〉. (2006년 9월).

김두현. 「Church Solution」. 경기성남 21C, 2006.

김종탁 · 김원배 외. 「합리적인 군무원 정원/인사관리 방안 연구」. 서울 : KIDA. 1998.

남송현. 「군선교 전략으로서의 진중 세례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3.

박종철. 「미국과 남북한, 갈등과 협력의 삼각관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2.

서정운. 「군선교의 기본 방향」. 「군선교신학」.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심경옥.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관건 및 추진 전략”, 「전략연구」. 제12권 제3호. 서울: Kris, 2005.

여운기 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의 안보정책」. 서울 : 서문당, 2003.

이민룡. 「한국안보 정책론」. 서울 : 진영사, 1996.

이선진. “1990년대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대응”, 「세계화 시대와 다자안보」. 서울: 지식산업사, 2002.

이승철. “21세기 국제 및 한반도 주변정세”,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경기: 나남출판, 2004.

정원영 외. “발전적인 예비 전력 육성 및 관리 방안”, 「미래지향적 인력설계 및 정책」, 서울: Kris, 2005.

조영진. “미래 인력 구조 발전 방향”. 「미래 지향적 인력 설계 및 정책 방향」. 서울: Kris, 2005.

차두현. “국방개혁의 비전과 과제”. 군종병과 창설 55주년 기념세미나 강연.

최광표 외. “미래전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미래 지향적 인력 설계 및 정책 방향」. 서울: Kris, 2005.

최병순. 「국방인력관리론」.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한동만. 「다자안보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서문당, 2003.

홍규덕. “안보 전략 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의 전략적 연계”, 「전략연구」. 제12권 제3호. 서울: Kris, 2005.